朝鮮日報
夕刊 一日(月)

三國共同委員會設置 日蘇間意見一致

廿六日、廣田外相、蘇大使會談 蘇聯軍의撤退도要求

【電通東京電話】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의 設置에對하여는 二十六日에 廣田外相과 유레니에프大使와 會談에잇서 原則的一致를보게되엿는데 그具體案에 對하야 유레니에프大使로부터 莫斯科政府에 請訓中임으로 그回訓의到着을기다려 近近具體的交涉을開始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委員會는 國境에紛爭이發生될境遇 事態의擴大를 防止하고 局地的으로問題解決을圖하려하는것인데 國境에잇서 紛爭을 일으키는 蘇聯側의過大한 兵力을國境方面으로集中하고잇는데서基因하는故로 廣田外相은 國境에잇서紛爭發生을 徹底的으로防止하기爲하야 同委員會의設置와함께 滿蘇國境線의 確定及國境兵力의撤退에對하여도 協議를進捗할方針이다 蘇聯側은滿洲事變後 極東에 兵力을增派하야 現在에는 兵員約二十三萬 飛行機八百臺 戰車七百臺라는 多數에達하엿스며 또國境線에 永久的保壘를 築造하는等 攻勢的態度를表示하고잇기때문에 滿蘇國境에잇서紛爭이不絶하므로 廣田外相은 爲先蘇聯側이 極東兵力을自發的으로撤退하야 現在의三分之一程度로縮減할것을 要求하고 다시三國共同委員會 或은小委員會에서 數百年以來不確定한 狀態이든 滿蘇國境을確定하야 禍根의一掃를圖하기爲하야 着着具體案을 進行식히고잇슴으로 同案의實現은 北鐵交涉成立으로 緩和된 日滿蘇三國의友好的關係及 滿洲國의建設을 一層促進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寫眞右는 廣田外相、左는 유大使)

謝滿國大使外省訪問

【東京電話聯合】駐日滿洲國大使 謝介石氏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廣田外相을訪問、着任의人事를述하고 日滿兩國의不可分關係의 徹底的實現에 必死的으로 努力할抱負를 말하고 廣田外相에 萬全의後援、援助를懇請하야 會談一時間에 退出하엿다

黑龍江의溯航은 蘇、平素부터不滿

日本砲艦機關銃發射說과 海軍省當局의見解

【電通東京電話】去廿七日、日本砲艦이 蘇聯領內의 黑龍江고약고크노를 溯航하야 機關銃을發射하얏다는 莫斯科電報에對하야 海軍當局에서는 아즉이러한事件에 對하야 何等報告를接하고잇지안타 그러나 滿洲國獨立後日滿海軍의 黑龍江溯航問題로 蘇聯側이 問題를 이르킨것은 只今에始作된것이 아니다 더욱이그不平을 말하는原因은 다蘇聯側의不誠意에 基한것이라하야 다음과가튼 見解를가지고잇다 黑龍江은 滿洲國獨立以來 每年夏期가되면 日滿協同防衛의 立場에서 匪賊討伐을爲하야 此를溯航하는것이다 元來國際河川에關하야는 溯航行의協定을 兩國에成立하야 相互便宜를圖하는것이 國際慣例가 되어잇다 그런데 蘇聯側은 日滿兩國의 協定提議에 對하야 이에應치안코 日滿兩國은 反滿討伐을爲하야 不得已蘇聯領內로 드러갈는지도알수업다 그러나 此는蘇聯側에無理가잇고 黑龍江에關한一切의紛爭原因은 蘇聯側의不誠意에서基因하는것이라고斷定하지안홀수업다

印度地方의震災畵報

【寫眞은 지난 五月三十日아침 印度발루치스탄州 퀘타地方에서 이러난 未曾의 大震災는 同地를瞬息間에 廢墟로化하게하엿다 最近 印度政府의 發表에依하면 퀘타市는 全滅되엿스며 四千의生命이 犧牲되엿다 一千의死屍는 아즉까지도 破壞속에 뭇처잇스나 發掘할方途가업다」 寫眞은 廢墟化한 퀘타市의一部

赤字財政의克服에 積極的으로進出

藏相、再次聲明發表하야呼訴

【東京電話聯合】來年度豫算編成方針決定과함께 高橋藏相은 長文의 聲明書를 發表하야 財政現狀을 國民에게 訴하야그反省을促하고 더욱 大藏事務當局은 赤字財政의 原因이될 公債政策에對하야 來週初에 事務當局談의形式으로서 詳細한 聲明書를 發表하기로되엿는데 大藏當局은 豫算編成의 重要性에 鑑하야 國民과함께 財政政策의 遂行을圖하려는 方針에서 從來의消極的積弊를 脫出하야 機會잇는대로 今後積極的으로 財政全般에關한 資料를 可及的交換하는同時에 高橋藏相과 事務當局談의 形式으로서 財政政策에關한 聲明을發하야 此를輿論에 訴하야 擧國一致로豫算의 實現을圖하기로되엿다

財政國策確立의 積極的態度의轉換

【電通東京電話】大藏省에서는 過般閣議에서決定한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을文字그대로嚴格히實行코저 一致全力을傾倒하야 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最近高橋藏相으로부터 談話形式으로 聲明이 發表된것을爲始하야 今後는藏相談或은 大藏當局發表形式으로 機會를捕捉하야 當面의方針貫徹에邁進하고 同時에 健全財政確立의小册子의頒布를 行하야 널리天下의後援을어드려고 萬全의努力을拂하고잇다 如斯히財政當局이 從來의豫算膨脹防止의消極的態度로부터 一變한 態度로나온것은 注目할만한一變化로보이는데 根本的原因은 今日의日本財政이 到底히現狀대로放置할수업는 處地에잇스므로 이將來의困難을 未然에防止할防衛工作으로서 大藏當局으로서는 國民의信賴를一身에 걸머진 高橋藏相의手腕에 期待하고 財政國策確立을爲하야 一路邁進코저하고잇는것이다(寫眞은 藏相)

外蒙側態度强固

滿洲里會議前途豫想難

【滿洲里三十日發聯合】哈爾哈廟事件에關한 滿蒙交涉은 依然進展되지못하엿는데 外蒙側은 어데까지든지 哈爾哈廟附近은 自領이라고 主張하야 自方에 有利한地圖를 提出하는等 强硬한 態度를取하고잇다 一方 滿洲國側은 外蒙側의 主張이 根據가薄弱하다는것을 指摘하고 蘇聯에서 製作한地圖와 其他滿洲國領이라는 事實이確然한 幾多의論據를 指示하야 外蒙의主張을 反駁하면서 이에十回에亘하야 會合하엿스나 何等進展되지못하엿고 外蒙側이 友好的讓步를行치안는限 滿洲里會議는 아즉 見解가서지안는다

白堅武에二萬元 懸賞으로逮捕命令

【北平三十日發聯合】何應欽氏는 三十日北平軍事分會에對하야 白堅武殘兵의 徹底的剿滅을 期하라고命令하고 白堅武의 逮捕者에게 二萬元을 首級을 가지고오는者에게 一萬元의 賞金을與하라고 命하엿다

話題解說

西南派의詰問電

◇北中問題의 先後措置에對하야 西南派의 態度가注目되든바 二十二日 西南執行部는 南京中央黨部와 國民政府에 左와如한詰問電을發하엿다

『最近日滿軍이 入關할意圖를보이고잇는此際 政府는日本側의要求에依하야 察哈爾 河北省의黨員을 罷免케하고 北中의黨市黨部를撤去하고 愛國運動을 禁止하는等 屈辱的措置를 取한데對하야 國民은모도憤慨하여잇다 特히 同人等은 僻遠에잇는關係로 最近에 이事實을 알게되엿다 國家의興亡에對하야 政府에는 반드시 適切한 方策이잇슬것이며 이것이外交에 關한것일것임으로 明示할수업는것인줄로信하나 最近의 事實은 國家主權의喪失 民族人格의 侮辱等 豫想外로 事態가 重大함으로 到底히 默過할수업는바이다

◇그리고『東北四省의 喪失은 抵抗치안은데서 基因되는것이다 塘沽協定과如한것도 自縛自繩이며 滿洲國承認도 그後로 中國側의 讓步로成立된것이다 相對方은 得寸進尺하는形勢로 事態는 마침내 今回의 北中問題가 惹起되고잇다 今回의 北中問題가 塘沽協定에서 由來한것인지 안인것인지는 異論하고 危急存亡之秋에 中央에對策이잇는지 업는지를 國民에게 明示하기를바란다』고하엿다

◇西南派의 反中央的態度는 今回가 처음이 안이다 그緣源은 深遠하야 第三者的態度를取하여 오다가 機會만잇스면 他의反將潮流에合流하여왓다 그러나 그동안 南京政府가 直接으로 그衝에當하여온 滿洲事變이라든가 그後에 이러나는 北中問題와 共匪討伐工作에 西南派는 傍觀的態度를取하여온것은 숨길수업는 事實이다 今回의 通電도 過去의 그것과 同一한 性質의것으로 다만 通電그것에끈치고말뿐아니라는것은 推測키 容易한일이다 더욱이 西南派의 元老胡漢民도 外遊途上에 올낫스며 同派의要人 鄒魯도 外遊하리라는 消息이傳하는것으로보아 平素에는 『救國』이니 『愛國』이니 떠들다가도 直接난관에 當着할때는 避하는것이 西南派의 例事이다

二重政策을是正 緩衝地帶를設置

蔣汪兩氏對日方針檢討에重大關心 對中第二段工作方針

【東京電話聯合】二十八日現地에서 發表된 有吉大使와 梅津駐屯軍司令官의 聲明으로 北中事件은 一段落을 告하게되엇스며 南京政府要人에게 北中의 肅正과 그將來의日中關係의 進展을示하는것이라는 觀念을 確立케하엿는데 日本政府로서는 마친 北中事件의 解決을 契機로 對中親善의 第二段工作에 積極的으로 進行할決意를 鞏固히하고 廣田外相은 今週中에 南京에歸國할豫定인 蔣作賓中國大使와 重要會談을 遂하고 對中第二段具體策에對하야 積極的으로 그意圖를 表明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日本政府의 對中根本方針은 二十八日現地聲明으로 이미 그一面을 明示한바와 갓치

一、對日二重政策의 徹底的是正

一、中國全土에 亘하야 排日氣運의 全般的終熄及日中親善의 具體的實施를 期할것

一、日本政府는 北中地區에對한 態度와 中部中國南中에對한 態度를 完全히 區別할것

一、日滿中三國의 特殊事情이 錯綜되여잇는 北中地區에잇서서는 事實上 日滿中三國緩衝地帶를 確立할 中部南部中國에 잇서서는 以先日中間의 經濟提携를 決定하고 그本意는 南京政府가 誠意로써 日中親善의 歷史的意義에 自覺하는 以上 當然 對日外交方針으로 確立할수잇는것이다

一、日中親善外交工作은 반드시 이一線에 集中할運命에 있으며 蔣中國大使의 歸國報告를기다려 展開될 蔣介石 汪兆銘兩氏의 對日親善方針 再檢討에는 비상한 重大한關心을 가지고잇다

會議에서도 刑事警察의 立場에서 選擧肅正을 徹底的으로 擁護할 方針을 宣明하엿다 此外에 一般은 이번에 自身이 街頭에서서 直接民衆에게 呼訴하기로되엿다

內務省選擧에 全般的肅正運動

【東京電話聯合】內務省은 今秋의 府縣會議員選擧와 來春의 衆議院議員總選擧에 ᄯᅡ르는 選擧肅正運動을 着着進行식혀 各府縣에 選擧肅正委員會를 設置하고 또外郭運動으로는 選擧肅正中央聯盟을 組織하고 各調査官을 增員하야 全般的肅正運動에 着手하엿고 또警保局에서는 高等科의 廢止 刑事警察의 擴充을 斷行하야 去二十七、八兩日의 全國刑事課長

루氏의努力奏効

米鑛山罷業命令撤回

【華盛頓二十九日發聯合】總罷業을 回避하려는 루즈벨트大統領의 必死的 努力은 二十九日夜에 이르러 마츰내 奏効되여 勞働長官퍼킨스女史는 二十九日午後十時 十五分 左와如히 聲明하엿다 合同鑛山勞働組合會長 루이스氏는 루즈벨트大統領의 要請을 容認하야 罷業命令을 撤回하엿다

北中에在한國策遂行 滿鐵會社를擔當

滿鐵을本來의使命으로還元 關東軍積極的으로支持

【電通新京三十日發】北中時局의 平穩化와함께 當然活潑하게促進될 北中産業의開發에 對하여는 今後急速히進展될터로 日中經濟提携에 基하야 中國側이나아가 日本資本과技術을 歡迎하리라고 觀測되는바 日本側에서는 벌서부터 對策에對하야 具體的準備를 進捗식히고잇다 大體로日本의方針은 滿洲國의創立으로 交通運輸會社로 變形한 滿鐵會社를 再次本來의使命으로 還元케하야 北中에잇서서 國策遂行의 重大任務에 就케하기로 大略決定하엿다 그리고 關東軍도 이것을積極的으로 支持하고잇는데 進出의 方法으로는 滿鐵資本에依한 北中産業開發會社라고도 할만한 會社를設立하야 同社自身이 北中의 重要産業의 開發統制를行하는以外에 其他의各種國策遂行의 第一線에서게한다는것이다 以上은이미 軍部와 滿鐵과의間에 大體의諒解가成立된것이라고 觀測되는바 新開發會社는 當分交通運輸方面에 主力을傾注할方針이다

滿鐵改組必要의 從來理由는消滅

陸軍首腦當局의見解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 滿洲에잇서 그實情을調査한結果 滿鐵改組問題에對하여도 그使命에鑑하야 檢討를行하야 改組를行하고안하는것을 決定하기로되엿는데 陸軍首腦當局의 意向은

一、滿鐵의改組問題는 그實情이 在滿機構改革으로 一元化한 結果이點으로 從來에主張되든 改組의必要는 大體消滅되엿다

一、따라 監督權이統一된結果 그運營方法은 大體政府의方針에從하야 行하되 從來와如히 政黨의勢力이 浸潤하거나 또는除去되엿다

一、滿鐵에서 經營하는附帶事業을 此를分離하기로決定한等의 從來考慮되여잇든 改組의目的은 大體消滅된것이라는 見解가 有力하나 今後이問題에 對하여는 關東軍에서 意見이具申될것으로 이意見의 到着을待하야 研究가 進捗되리라고 觀測된다

北中現地首腦部 最後的協議遂行

【天津三十日發聯合】士肥原少將은 高橋武官과 同道하야 三十日正午 北平으로부터 來津、今曉 山海關으로부터 來津한 山海關特務機關長 儀我大佐 關東軍原中佐等과 官邸에서 梅津司令官 酒井參謀長以下 幕僚와 午餐을함께하면서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協議의 主要題目은 左와如하다

一、北中、察哈爾兩事件의 善後工作

一、豊台事件과 今後發生할수잇는 排日策動에對한 取締方策

一、國境線으로부터서의 關東軍의撤退

一、全般的北中事態의 調整과 日中親善의 實質的實現

一朝有事時에는 九十萬大兵動員

에디오피아國陸相談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聯合】國境線上의 危機切迫과함께 에디오피아 政府는 着着對抗策을講究하고잇는데 에디오피아陸相 라스물캐타氏는 三十日左와如히述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는 이미約三十五萬의 正規兵을 保有하고잇는데 一朝有事時에는 一個月以內에 八十萬乃至九十萬의大兵을 動員할수잇슬것이다 에디오피아兵은 勇猛果敢하야 祖國을防衛키爲하여는 最後의一兵까지 싸울것이다

毛澤東戰死說

【電通成都一日發】蔣介石本營에 達한情報에依하면 中國사비에트政府 人民委員會主席 毛澤東은 朱德軍과함께 四川으로 轉戰中 彭縣에서 戰死하엿는데 死體에 防腐劑를施하야 保存中이라한다

聯盟東京支局廢止 聯盟通信部를新設

【東京電話聯合】國際聯盟事務局은 六月三十日로써 東京支局을廢止하고 七月一日부터 새로國際聯盟通信部를 設立하야 從來의事務를 繼續키로되엿다 右事務所는 從前대로 丸內二丁目十二番地로 通信員은 德田文郞氏이다

人事·集會

▲제·엘·푸ー스氏(世專敎授)安息年으로歸國人事次來社

▲關水武氏(朝鮮石油株式會社常務取締役) 新築落成祝賀人事次本社來訪

▲木村義雄氏(朝鮮石油株式會社專務取締役)同上

▲熊谷保佐氏(東拓京城支店長)同上

▲鈴木三郞(同事業課長兼管理課長)同上

▲佐藤賢氏(同金融課長)同上

▲韓奎相氏(漢城圖書株式會社專務)同上

▲金顯浩氏(同支配人)同上

▲郭穀根氏(東洋宣敎會牧師)同上

▲張源根氏(天然洞敎會傳道師)同上

▲朴炳明氏(東洋宣敎會牧師)同上

▲宋台用氏(體府洞敎會傳道師)同上

▲金元植氏(獨立門敎會傳道師)同上

▲朴文熙氏(龍山敎會傳道師)同上

▲金永倫氏 同上

▲崔載瑞氏(法專敎授)同上

▲姜柄順氏(辯護士)法學研究次로 一日東京向發

八面鋒

◇京城公會堂에서 開催된故土新聞音樂演奏會 第一夜超滿員으로 大盛況

◇演奏하는이 듯는이보다 熱心하고 聞聽하니 밤가는줄을몰랏다

◇大阪에 收容된 三千罹災民中 大部分이 朝鮮人이라고。왜그리 朝鮮사람은 간곳마다 못사는고。

◇同胞여! 困難속에서 사라나야만 참말 힘잇는 자라는法。

◇米國서는 넓이 一萬平方呎의 地下金貨貯藏庫를 파고 一千三百의軍隊를시켜 派守케한다고

◇옛날 富者가 葉錢을 땅속에 파뭇든 時代가 도왓군!

昨年度稅收의增額 實로一千萬圓

總督始政以來의記錄

昭和九年度租稅收入은 最近集計되엿는데 實收總額은 五千六百十三萬九千三百三十二圓으로 豫算額에比하야 九百九十三萬二千八百四十三圓의 增加하는 黑字를내엿다 그리고 稅務課所管의 租稅外收入의 增收額 十七萬六千三百十九圓을 加算하면 增收總額 一千十萬九千六十二圓이되는데 始政以來의 記錄的增收를 示하엿는데 主要한實收入內譯은 左와如히 豫算額에比하야 相續稅와 噸稅를除하고 그他는 全部增收이다(括弧內는 豫算에比하야 增減額 △印減 單位千圓)

地稅	一四、一六八(一)
所得稅	五、二四〇(一、〇九一)
營業稅	一、五四三(三三八)
資本利子稅	四四七(一〇二)
相續稅	六二(△一〇)
鑛稅	三九〇(六四一)
銀行券發行稅	五五(四七)
酒稅	一六、九八三(三、八四五)
淸涼飮料稅	一八〇(八三)
砂糖消費稅	二、六四三(三三三)
取引所稅	四九七(七)
關稅	三、七二八(四、七二九)
噸稅	三三(△四)
出港稅	九一(三六)
實收入總額	五六、一三九(九、九三二)

水虫 (무좀에) に
ポンホリン 본호린
빨이 잘낫고 爽快한 液劑
一日一回발느면 充分하다
『二回以上발늠은虛費』
藥價 四〇、六〇、一、五〇
발을愛護 무좀撲滅
製造元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大阪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本町 京城府黃金町

有益多趣味한養蜂業
日本改良養蜂의始祖
農林省 帝國大學農學部御用
創業明治三十六年
愛知縣一宮局區內 服部養蜂場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犧牲的大賣出!!
十五ケ年保證附
クローム腕時計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壯重한大合唱等 初夜의公演大盛況

在東京音樂家協會音樂團 今第二夜의人氣漸騰

동경음악가협회음악단일행을 마지한 삼십일밤경성의 대공연은 예정과가치 저녁여덟시 시내장곡천정공회당에서 열리엇다 일행의 소식을들은 만도의음악팬들은 일즉부터 그들의 온후을 듣고저각방면의 기대가만흔터이라 정각전부터 모이기 시작하여여덟시경에는 장내가대만원을 일우웟다 정각에본사편즙차장 함상훈(咸尙勳)씨로부터 피력하야 간단한개회사를 밟하고이어서곳순서에들어가 혼성합창(混聲合唱)의 「탄생의노래」를 「비오린과첼로」조연으로 연주되니 남녀의우렁차고 도섬세가 서울이 서로맛어울리워 마창청중을 도취케하여, 이밤의대음악회의막은 화려하게열엿다, 뒤이어서 장비(張飛)씨의 저음독창이며, 삼중창, 현악사중주등이잇고 다시혼성합창으로 제일부를 마친후 잠간쉬여 제이부에들어가 김문보(金文輔)씨의 피아노독주잇는 보정으로들려진노래는 장내를 열광식힐만큼 갈채를바터 재청삼청을바덧다 그러고 다음에인끄의 이중창에들어가 김산옥(金山玉)군의가극「마담뻐더풀라이」의「핑카톤」으로분장하고나와 동경일비곡(日比谷)공회당에서 원신자(原信子)씨와 가티 출연하든 그대로 텀한의(林英愛)군독창이대로들으는노래는또한재청의 힘호를비덧다 김군의 타고난 용성도 조와거니와 림헌의군의 청중하고 균제된리듬도 또한빗나는 것이엇다 끄트로 다시 혼성합창에들어가 전원이 열과힘을다한 연주로완전히 장내를위압하야 혼성합창의 연주효과를 십이분발휘하고 경성공연의 첫밤을마추엇다 때는열시삼십분이가치하여 첫밤의공연은 원만하고성대히 끗낫거니와 일단은 하로를 쉬이어 일밤의 제이일의 공연에는 첫밤이상의성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되고잇다

이가티 하여 경성공연의첫밤은 일행이먼려행중의련일피곤하엿슴에 불고하고 소기의효흥한 연주성적을 어덧는데 금일일의 제이일은 다시일부곡목을변경하야 첫날이상의 성적을어더 만도인사의갈채에 보답코저 하고잇다 일행의 지휘자김문보씨는 연주를필한후 피곤한중에서 열성에넘치는 태도로아래와가티말하얏다

今夜의第二日엔 曲目도一部를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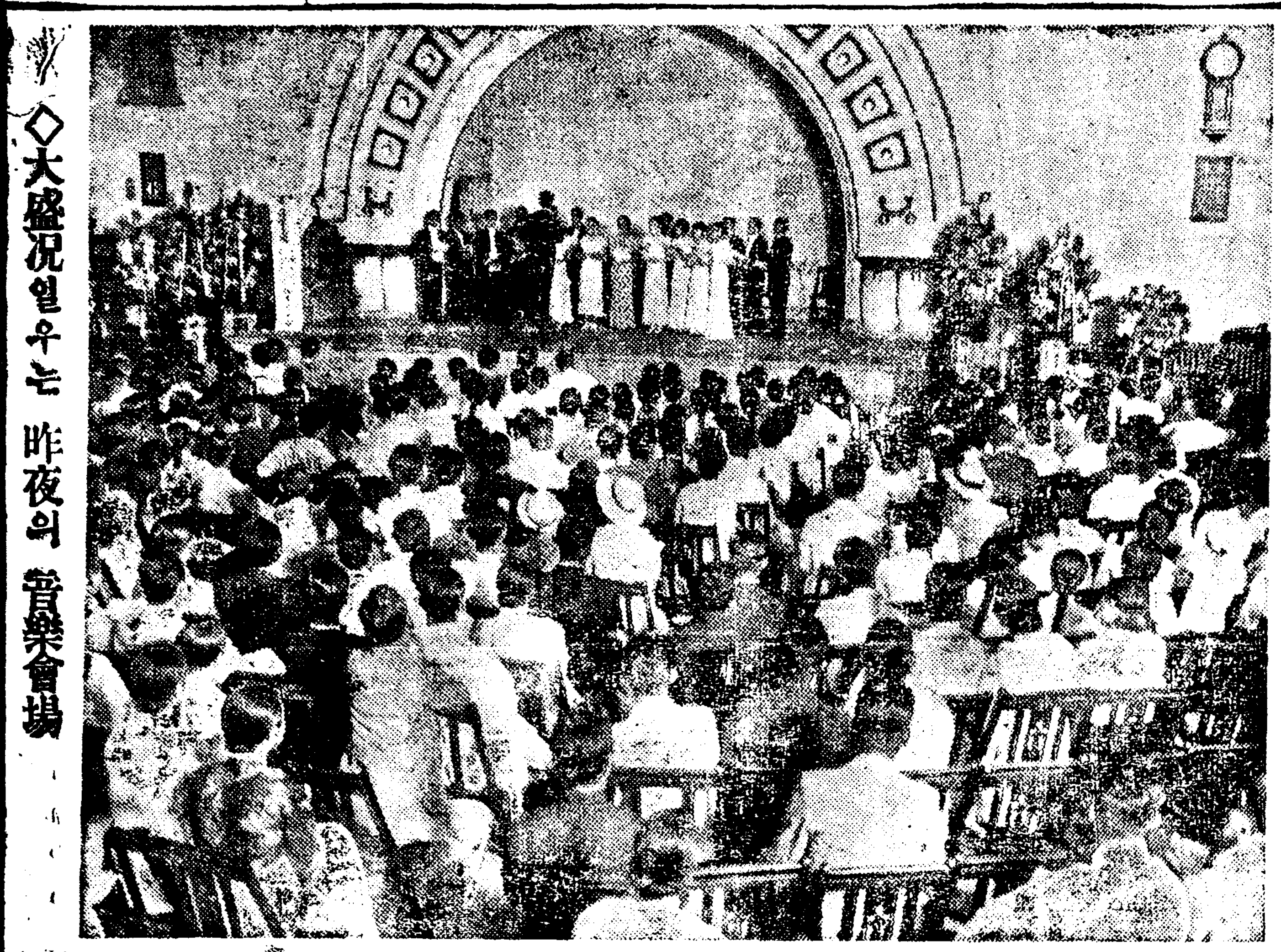
십이분연주효과발휘하리라고 協會音樂團指揮金文輔氏談

먼길을 기차에부대기며왓고전일은대구에서 연주회를하고곳 그밤으로 상경하게되는등여러가지로연주조건이불리하엿스니 그만큼성적을어든것은 깃버습니다 그러나하로를쉬이고나면 원기는 일층회복하여 췌신조혼성적을어드리라고 밋습니다 금일일밤에 합창곡등에 일부새곡조를 너허 만도인사의 성원에 보답코저하옵니다

本報愛讀者優待

優待券가지고오시면

재동경음악가들의고토방문음악대회제이일은 전야에배가한인기속에 금일일오후여덟시부터 장곡천정공회당에서 화려한막을열게되엿다 이날밤은 본보애독자제위에게한하야 입장료보통일원을팔십전으로 학생칠십전을오십전으로할인하기로되엿는데 이일부석간이면의 우대권을 오려가지고오시는분에게한하야 확인할터이나 지참하신분은 우대권을가지고오서도 입장치못하게 될터이므로 될수잇는대로 시간전칠시경미리입장하시기를 바란다



◇大盛況일우는 昨夜의音樂會場

府廳鐵道局昇給

철도국(鐵道局)의 정기승급은 삼십일부로 발령되엿는데그총수는 이천여명에 달하는바 그내역은 아래와가다

勅任官及同待遇增俸 三五〇名
判任官及同待遇任用 九八名
月給雇員增給 一、六三〇名
雇員昇給 八六名
計 二、一六四名

그리고경성부청(京城府廳)직원의 정기승봉은아래와가티발령되엿다

吏員三名 府屬一名 書記六五名 囑託一名 雇員 一一〇名
計一八〇名
小學校五六名 普通校 二〇名
中等校三名 幼稚園一名 計八〇名

경긔도청(京畿道廳)의 승급은아래와가다

判任官三六 雇員二三 地方待遇職員二九 道吏員一二一 警察職員五〇

狗峴嶺工事에 六名이死傷

터널의지주가넘어저서 一名死亡、五名重傷

이십팔일오후열시경 평북민포선(龍浦線)철도공사장 제십륙공구구현령(狗峴嶺)제십구호턴널 서편구멍으로부터 입백팔십미돌되는지점에서 항내의지주가넘어지는바위가무너저 작업중의인부여섯명이 그미러갈려 한명은죽고 다섯명은중상하엿다

世醫專齒科의 李氏米洲留學

금일밤출발

세부란스 의학전문학교 치과희교실에서 『빠ㅡ스』교수지도하에 성심히 림상치과학을 연구하는 리유경(李有慶)씨는 동교교수급학교당국자의 신망을어더 해외연구생으로 선발되여 치과의학의발상지인 미국으로 약삼년간 류학하게되엿는데 씨는 금일일밤 첫시차로 경성역을떠나 시베리아를 경유하야 구라파각국의치과학의대세를 시찰한후 북미피츠벅대학에서 연구하게되리라한다 (사진은 리유경씨)

大阪朝鮮人의 被害戶數四千餘

漸次減水로큰念慮는업스나 被害狀況은極히凄慘

【大阪支局特電】 대판및그부근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가옥의삼만호중 마루에까지침수된 호수가무려사천삼백여호에 달해서일시는 비상히그안위가 우려되엿스나오늘아츰부터 점차 감수됨에따러 념려는면하게되엿다 피해는 비교적근소하나 그생활상태에비추워서 본다면상당히크다고 볼것이고 극히 처참한것이만타 그리고 지금도아즉침수되여잇는 호수가사백여호나되는바가김으로 감수되는중이고인명에는 별반이상이업는모양이다

關西水害總計

【電通東京電話】 관서지방(關西地方)과구주(九州)의북부일대에 생긴이번의 수해에관하야 각현에서 경보국에드러온 피해상보는 삼십일밤현재로 다음과갓고 그밧게 산문허진것언、뎍문허진것、철도선로피해、탄광、공장등의피해로 상당히만흔모양이다

▲人命死傷
死者 八五名
負傷者 九一名
行方不明 一五名
計 一九一名

▲家屋被害
流失 一九二戶
全潰 九一六戶
半潰 四九八戶
床上浸水 二六八九一戶
床下浸水 一六四八五五戶
計 一九三四五二戶

▲橋梁被害
流失 五一五個所
破損 八四個所
計 五九九個所

▲堤防被害 四〇三個所
▲道路被害 一三三八個所
▲田畓被害
流失 一〇五九町步
浸水 三五〇一町步
計 四五六〇町步

九州各鐵道事故

【電通福岡電話】 선로붕궤로인해서 불통되잇는구주(九州)본선이일시—원전(原田)시—원전(二日市—原田)사이는 응급공사를한결과 삼십일오후다섯시오십분경에 복구개통케되엿스나 동여섯시사십분경에도원전—괴산(原田—基山)사이의선로가붕궤되여 다시불통되엿다。그리고오서(烏栖)운수사무소관내의 불통되곳은 장긔본선비전—반절—소장정(肥前—飯田—小長井)사이와구대선구류미—죽후—초야간(久大線久留米—筑後—草野)의일부분에미치고잇다

山陽線一部不通

【岡山電話聯合】 중국(中國)지방은 련일계속하는호우로 각하천이 범람하야 산양선월전(山陽線月田) 중국승산(中國勝山)사이는 삼십일 욱천(旭川)철교의교각이 증수로말미암아 류실되야 렬차운전이 매우위험함으로 렬차는이두곳에서 각각 되돌리운전하기로되엿다

總督府許可업시 寺刹의處分不得

市外靑蓮寺의競落明渡에對한 高等法院의新判例

절에서 아무리 빗을저도 절재산을 강제집행을 해가지못한다는 스님들의입이 버러질 고등법원의 신판결례가잇다 지나간 소화이년삼월 시외 하왕십리(下往十里)에잇는 청련사(靑蓮寺)에서는 당시의 대표주지 변보민(卞寶眠)씨가 동사칠소유로잇는토지 이백사십칠평을 한성은행(漢城銀行)에 접혀든것이 루차의 기한이지내어 동은행에서는 대금오백원에대한 채권집행을 하게되여 경성지방법원의 허가를 어더 강제경매를 하엿고 그경락인이시내 의주통(義州通)일정목 고교정인(高橋正人)이라는 사람이엇섯다 그래서 고교씨는 소유권을취득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첫는데 그런뒤에 두차레나 청련사에대하야 명도를요구하엿스나 듯지아니함으로 필경가옥철거소송을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엿다 결국청련사측에서패소하엿고를 복공소를하엿스나 역시패소하엿는데상고한결과는의외에도 『총독의허가를어더서야만처분할사찰의재산을 경락한것은위법이다 그러므로지방법원의경락허가가잇섯다하더래도 그집행적인 부동산의소유권은취득치못한다』는견해로써 일심과이심에패소하엿든청련사측이승소하엿다 이리하야금후로는 절에서진빗에대하여절소유의재산을 강제집행할수가업시되엿다

僧侶의假面쓴 詐欺團九名

경성을중심으로가지출몰 本町署에서取調中

삼십일 오후열한시경 시내본정경찰서 사법계리(李) 최(崔)김(金)의세형사는 황금정 륙정목 일번지를 습격하고 맛침그곳에 모혀잇는 충남연기(燕岐)출생의리범만(李範晩)외에 황한울(黃韓蔚)어순희(魚順熙)리복경(李福京)박인성(朴仁誠)김국선(金國先)심순영 심준영(沈俊英)리창하(李昌夏)등아홉명을 체포하는동시에 증거물로중이입는 가사 목탁 배랑기다금시계금반지등귀금속품을 압수하여 동서에류치한후 엄중한취조를진행중인데범죄내용은 전기리범만이단장이되어가지고 수년전부터 전과자무리한등을규합하야 동냥다니는중의 행장을차리고경성시내는물론전조선각지에 출장하야 남의집문전에가서 동냥을하는체하고 기웃거리며내정을 엿보아가지고는 어리석은주부들에게당신집에 큰재앙이 가까워다든가 가장이죽게다든가하는 허황한예언으로혹은신상에 화가잇서 그것을면하자면 크게불공을드리러어야한다고귀금속 현금、의복、백미등을바더다가 경성에잇는단장리범만과리하야 사기한물품을처치하여서는 주색등에질탕히소비하여왓섯든것이다。이러한 범죄가수년전부터경성을 비롯하야전조선각지에떠저잇스되 그범행이 교묘하야 경찰도용이히 적발치못하든중 지난 륙월이십륙일에 시외 신당리(新堂里)전장히(全長熙)(假名)의집에 중하나가 나다니서 전기한방법으로 이집에 불원간 큰재앙이나리겟스니 그것을 면하자면 불공을 드리는데 그러나 불공드릴것은 불공때에만쓰고 다시 돌려보낼터이니 그리나 불공드리기전에 백미한말 현금칠원을 사취한채 어데로종적을 감추어바렷다 이보고를바든 본정서에서는 즉시 체포취조하였고 그한명의범행이 사변에 삼천여원의사기를한 사실을 취급하였든만큼 즉시내사를 시작한결과 전기황금정륙정목 삼팔번지가 서울인것을알고 그와가치맹을다 서류의에 습격체포한것이다 그런데금번에체포된자들은 대부분경기를중심으로 도라다니는자들이 요아리의배당을 바터가지고 그들은고급양복을 해입고일류신사로차리고밤이면 주색의거리로다니며질탕하게지낸것이라한다

京釜間六時間에달릴 流線型列車運轉

三、四兩日間에試運轉

동경—경성간일주야 어십사시간의일본내지와 조선간 련락의대련락을표로한 철도성(鐵道省)의 『스피드』업계획에 따러 조선철도국에서는 맛춤내 이런락의구체화를 도모하기위하야 오는삼사이틀동안 경성—부산간 사백오십킬로를 초특급렬차로 겨우여섯시간의 쾌속『스피드』로써주할시운전을 실시케되엿다 동시운전은 임시렬차는 일곱대로 편성해서 오전 일곱시 삼십오분경성역을출발、도중 대전대구(大田、大邱)두역에서 급수키우하야 정거할뿐으로 다른정거장은전부 통과만해서 오후한시삼십오분 부산에도착했다가 음날인 나흔날오전부산을떠나대구、대전서만갈때와가티 정거했다가 한숨에경성으로돌아오게되는데 그 시간은 다음과갓다 동렬차의 『초스피드』의주력은 더욱 말할것도업거니와 이밖에 조선각지에 …

▲南川(三日)
京城發 午前七時三五分
大田着 同 九時四一分
同發 同 四五分
大邱着 同十一時五〇分
同發 同 五四分
釜山着 午後一時三五分

▲北行(四日)
釜山發 午前七時
大邱着 同 八時四〇分
同發 同 四四分
大田着 同一〇時四九分
同發 同 五三分
京城着 午前一時

運動競技欄

東京留學生野球團 明二日午后七時入京

【群山서 電話】 東京留學生野球團 一行은 今一日午後四時부터 當地公設運動場에서 全群山과對戰한後 明二日午前十一時二十一分 群山을떠나 同日午後七時二十五分京城驛着 列車로入京할터이다

對平南陸上 龍鐵勝 37…28

【平壤】 龍鐵對 全平南對抗陸上競技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箕林里公設運動場에서 行한바 結局三十七·五對二十八·五로 龍鐵軍快勝하고 同五時十五分閉會하엿는데 戰績은 다음과가다

【百米】 1再(金善)(平南) 2山本(龍鐵) 3岩崎(龍鐵) 十一秒三
【四百米】 1李常榮(平南) 2岩崎(龍鐵) 3三好(龍鐵) 五十三秒三
【千五百米】 1李正根(龍鐵) 2池永龍(平南) 3白圭福(龍鐵) 四分十八秒二
【五千米】 1池永龍(平南) 2吳東瑞(平南) 3金德淳(平南) 十六分二十八秒
【四百米繼走】 1龍鐵팀(森、京田、岩崎、山本) 四十六分二 2平南팀
【千六百米繼走】 1平南팀(金萬式、朴亨賢、再(金善)、李常榮) 三分四十三秒六 2龍鐵팀
【投圓盤】 1劉約翰(龍鐵) 四〇米十九 2金顯俊(龍鐵) 5中野(龍鐵)
【投砲丸】 1金顯俊(龍鐵) 一三米二三 2劉約翰(龍鐵) 3山上(平南)
【投槍】 1高田(龍鐵) 五三米二〇 2增田(平南) 3金寶命(平南)
【走巾跳】 1山本(龍鐵) 六米二三 2再(金善) 3劉俊健
【走巾跳】 山本 久原 上原(以上龍鐵) 永富(平南) 全部一米六五
【三段跳】 1朴永俊(平南) 一二米九七 2久原(龍鐵) 2佐古(龍鐵)
【棒高跳】 1高田(龍鐵) 三米七〇 2佐古(龍鐵) 3全鳳一(平南)

大邱俱野球勝捷 對留學生戰에

【大邱】 東京留學生野球團의 故土訪問第一戰인 對大邱俱樂部戰은 三十日午後四時부터 當地公設球場에서 行한바 留學生軍은 運不利하야 第一戰에 敗하엿다

中等教職員庭球 二高普優勝

京畿道學務課主催의 第三回道內公私立男女中等學校教職員聯盟庭球大會는 三十日午前八時부터 第二高普코ー트에서 擧行한바 다음의戰績으로 第二高普팀이 優勝하엿다

(準決勝)
【大東】 【二高】勝
×(文承郁·南廣裕) 0—4 (徐京烈·藤谷)○
×(李基俊·金始慶) 0—4 (來島·島田)○
×(金顯性·金炳璧) 棄— (桑瀨·垣武)○
【一高女】勝 【二高女】
○(森田·湯淺) 4—1 (安井·芹澤)×
○(小澤·木順) 4—0 (鈴木·樋口)×
○(東郷·松永) —棄 (沼田·藤村)×
(決勝戰)
【二高普】勝 【一高女】
×(京烈·藤谷) 2—4 (湯淺·森田)○
○(來島·島田) 4—3 (小澤·木須)×
○(桑瀨·垣武) 4—2 (松本·永郷)×

少年庭球大會 龍中組優勝 普成高普惜敗

朝鮮主催第十回全朝鮮少年庭球選手權大會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龍山鐵道局코ー트에서 行한바 出戰한四十四組中에서 普成高普의 鄭、尹組와 龍中의松野、吉松組가最後決勝戰에對하야 結局四對一로 龍中組優勝하엿다

【第三回戰】
道商(盧開源·金榮浩) 3—1 (金鎭浩·李改廣)啓星
龍中(吉松·松野) 3—3 中京(金達·李城?)
中京(吳聖運·李成浩) 2—0 二高普(伊上·李成浩)
龍中(今村·田中) 3—0 中京(伊井·上川)
二高(寺西·池浩) 3—1 中京(吳順·吉田)
中京(今井·吉川) 3—0 二高普(小林·中道)
養正(韓炳成·郭村) 3—0 養正(李斗慶·金龍善)
中龍(金浩·金成鎭) 3—0 京商(秋水·鄭永)

【第四回戰】
京中(土肥·伊藤) 3—1 (今村·田中)中京
啓星(金鳳浩·李吉浩) 3—0 (金錫禧)養正
二高(吳浩·宋廷漢) 0—3 (韓英·松岡)中龍
龍中(吉松·松野) 1—3 (韓成·村)成蹊
(準決勝)
龍中(吉松·松野) 4—3 (金村·成學)成商
京中(鄭吉·韓龍) 4—2 (李今·田中)
(決勝戰)
龍中(吉松·松野) 4—1 (尹鄭·張)普成

天氣豫報

曇

滿洲朝鮮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야 處處에弱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서 日本海南方에擴大되야 梅雨期에 恰似하다 滿洲와 北朝鮮은개이고 西部朝鮮은 흐리며 南朝鮮과 日本一帶는 비가오며 明日도日氣는 繼續하야 흐릴것이다

昨日 最高 二五、四
昨日 最低 一八、一
今日 正午 二四、九

今夜 第二日

今一日午後八時 公堂會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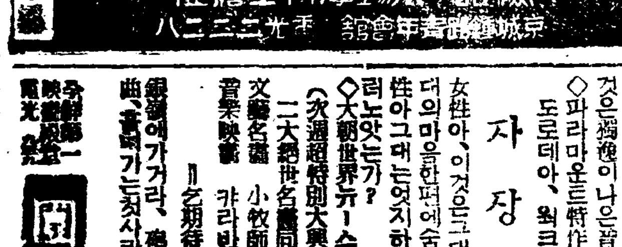
在東京朝鮮音樂家總出 故土訪問音樂大會

愛讀者會員券 普通八十錢 學生五十錢
普通一圓 學生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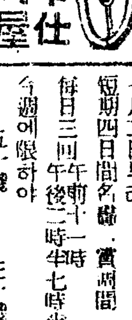
主催 朝鮮日報社

在東京朝鮮音樂家故土訪問演奏 愛讀者優待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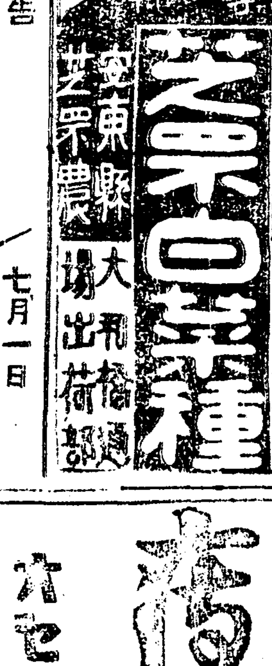
普通 一圓을 八十錢으로
學生 七十錢을 五十錢으로
今七月一日午後八時 長谷川町公會堂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鐘路靑年會館 電光二二二八
主任 書 東 學



自轉車材料原價奉仕 信用眞問屋
製造元より直接御得意へ
特典 付商報 進呈
最高級新型自轉車日英米保險付
實用優美營業用德用車
仕上吟味至急中古車
出物タイヤチューブ
地方へも迅速御送り
名實隨一のエスエム號
東京市日本橋區
眞實元祖 三自轉車
電話 日本橋



榮種商 産아第一
大割引
芝東果樹園農場
芝果種
大邱驛 前大邱農場出荷部

開業廣告
忠州唯一의 紳士淑女의社交場
カフェ 아리랑
七月一日부터開業
女給 浪江 君子 カナリヤ クロリヤ ヒトミ
主 張 漢 植
電話 四八番

疾은 개ㅂㅁ 痔疾藥으로
全國各藥店에서

파리는勿論 여더한家庭害虫이라도 당장에全滅!
效力判異
夏季一家一罐
傳染病豫防에
景品附 イマヅ製品
イマヅ蠅取粉 イマヅ殺虫劑 イマヅ芳香油
大阪市·大仁本町三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全國藥店に有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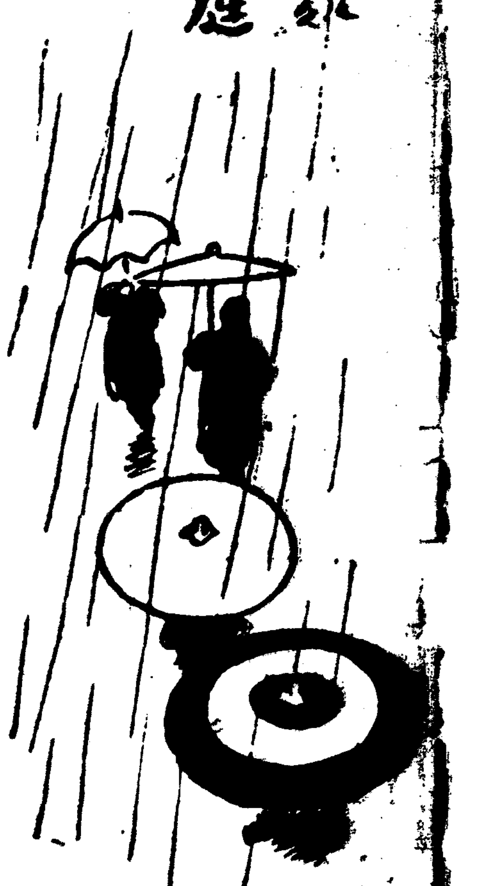
イマヅ 蠅取粉 殺虫粉
總額 景品 五十萬圓 提供!!
空くじなし スピーサ着用愛
第二回抽籤
締切·八月廿日 發表·九月上旬
大景品
1 純八錢金指輪(五匁) 三、七五〇名樣
2 時計(腕時計)女洋傘(一本) 六、二五〇名樣
3 三越特選割烹着(一着) 三七、五〇〇名樣
4 金光石入時の鐘(一個) 一〇〇、〇〇〇名樣
5 手ぬぐい 二五〇、〇〇〇名樣
其外 イマヅ防虫香(一個) 總數...
(詳細規定は製品に添付)

團成社 映畵第一 電光
銀幕에가거라、砲煙과雷雨와함께 曲、寶메가는첫사랑、擬戀의人生
◇大朝世界ニュース 四篇
(次週超特作大興行)
二大超世名篇同時獨占上映
文藝名篇 小牧師 十一卷
音樂映畵 카라반 十卷
乞期待
女性아、이것은그대의모양이다、그대의마음한편에숨은孤獨이다、女性아그대는어지하야怒를참는...
◇파라마운트特作日本版 도로테아、워크主演
자장가
明朗、더한층明朗、곱고、아름다운音樂、興이나는노래와、우습과、이것은獨逸이나은音樂映畵中白眉篇
이밤야말로
◇獨、시네아리안즈特作日本版 世界的테너、짠키푸라主演
映畵界賞은團成社에서언제든지第一級的名作上映
七月二日부터 短期四日間名畵 實演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半 七時半
今週에限하야
階上 五十錢 三十錢 階下 三十錢 二十錢 料金·特性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話 一三三
七月二日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二回합니다
◇파라마운트社特作日本版
裁判劇 暴風의處女 全八卷
監督··· 스티방로바스氏
主演··· 월니암보이드氏 外
◇新興키네마社超特作品
戀愛劇 紛盤縞の女 全七卷
監督··· 印南弘氏
主演··· 由利健次氏
◇비나흘로社特作品
亂鬪劇 北極의猛者 全六卷
監督··· 님一하도一도氏
主演··· 님一하도一도氏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〇
當る二日より 新期三日間
特別名作競映週間!!
階下席 十錢均一
不二映畵社新興キネマ合同製作
新興キネマ超努級現代劇
原作 尾崎紅葉 監督 鈴木重吉
金色夜叉
高田稔、鈴木傳明、佐久間妙子、英百合子、渡邊篤、主演
新興キネマ超級時代劇明朗篇
原作 阿古三之助 監督 曾根純三郎
戀と十手と巾着切
撮影 三木茂
河津清三郎、望月禮子主演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明朗篇
監督ノーマン・マクラウド氏
ママはパパガ好き
チャーリイ・ラグルス氏 メリイ・ボーランド嬢 主演

家庭



여름의 살냄새를 향긔롭게 하자면

고흔옷에 몸청결만할게아니라 음식에주의가필요해

여름은 엽흰중어 땀이제일만히 나는때따라서 몸에서 냄새도 만히납니다。그래서 이냄새를 막으려고 근년에는『로-즈』이니『바이오렛트』이니하는 단순한향긔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향긔가나는 향수가 가히팔리는 모양이나 아모리해도 향수로서는 전신에서 발산되는 살냄새를 조절하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더구나 여름에나는

살냄새는 겨울의 그것과 달너서 긔후와생활에 직접으로 관계가 잇는것이만큼 이것은 생리적으로 근본적주의를 하지아니해서는 안됩니다。액취(腋臭)라고해서 겨드랑에서나는냄새는 특수한것으로 곗헤사람에게불쾌한감촉을주지마는 그외에라도 전차가튼데서나 방문을갓슬때라도 몸에서 춋치못한냄새가나는것은 남에게 조흔인상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러한살냄새를 엇더케하면 남에게

조흔인상 을주도록할가

다시말하면 체취미(體臭美)를 엇더케보전할가를말슴하겟습니다

살냄새라는것은 대체로 사람의 피부의표면에잇는 피지선(皮脂線)이라든지 액하선(腋下線)가튼데서 나는지방산(脂肪酸)속에포함되여잇는 특수한지방산이 발휘시서울가지고 잇는때문에 나는것으로서 아것은이봉이나 남녀의성별이나 직업에따러서 다르다는데 무엇보담도 일상먹는식물과 가장깁흔관계가잇는것입니다。그래서여름철에 살냄새가 제일심한것은날세가더운데따라서 피부의 분필(分泌)이 만허지고 동시에이러한

피지선의 지방도만허지며 게다가 외긔의온도때문에회발이 잘되는때문입니다。그럼으로 만약 남에게 조흔인상을주는 살냄새를나게하려면 우선무엇보담도 피부를청정하게하는것입니다。더구나 여름에는 목욕은 자조하고 머리도 자조감어서 피부를 청결하게하고 신진대사가 빨리되도록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층더근본적으로 몸에서 악취가나지안케하려면 무엇보담도

음식물에 주의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대체로 사람의신체에는 지방이 가죽밋헤만히깔녀잇슬뿐아니라 복강(腹腔)이라든지 장관(腸管)사이에 얼켜잇서서 맛치 긔계에 기름을주면 서로마찰되지안코 모손되지안든시 사람의 신체에도이지방이라는것이잇서서 오장륙부가서로 마찰되지안코 원활하게활동하도록하는것입니다。그래서 보통때에는 그다지 대단한것도 아니나 음식을못먹게되든지압허서누엇슬때가튼때는이지방이라는것이 매우중요한것입니다。그러나지방이넘우만흐신분은

기름기가 업는 식물성(植物性)의 음식이나 과실가튼것을 만히먹는것이조흡니다。그러나식물성의음식중에도 분초나 마늘가티 유(硫化)『아르리-르』이라고하는 일종의 휘발성의체취를 오래도록발산식히는것은 조치못합니다。그럼으로비교적 향긔가잇는 과실 이라든지 나물 『토마도』나 오이나 감자가혼것이조코『빠-다』나『라-드』가흔것은 음식에넣지안는것이조슴니다。

이브가먹은것은 복숭아가올타

창세긔이의하면 태고의 에덴동산에서『이브』가먹은금단의실과는 능금이라고 일-미더왓스나 아니 그것은능금이 아니고 복숭아이라는 새로운설이 최근에나타나서『아메리카』의원님는사람들에게는 조흔화제가 되엿다고합니다 능금이든 복숭아이든 무슨일이잇겟습니까마는 이것을가지고 큰문제나되는듯이 떠드는곳에『아메리카』인다운데가잇습니다

이새로운설을차도한사람은『미조리-』의『세인트루이스』의교수『이느·씨·스타-크』씨랍니다。씨는『과실의기원』(果實의起源)에대해서 아주권위잇는이인데 요지음중국의 전설을 인용해서 다음과가티말합니다

『고대로 중국에서는 어떤종류의복숭아를먹으면 영구히죽지안는다는 전설이잇다 이소위불로장생의 복숭아인데 이것은비교적 적으로일이 만흔야생의것으로 중국의 산간이나해발 칠천척이나되는 서장(西藏)의고원에서 나는것으로 이것이야말로현대복숭아의 선조이다 그리하여 이복숭아는 장사꾼에 의해서 로-마나 그리샤나 페르시아에전해진것이다 중국에서는 복숭아나무는 또『지식의나무』라고하여 알려저잇다 지식의나무는 죽에에덴동산의지혜의나무이다 따라서 이브가 먹은것은 오늘날『페르시안·엔펠』로써 알려진당시의 복숭아인것이다 이러케말해오던 이브가 먹은것은 능금인것이라는 속설은 과실과원의상상일뿐이다』

여름에 입히는 아동복짓는법

분사후원의양재봉강습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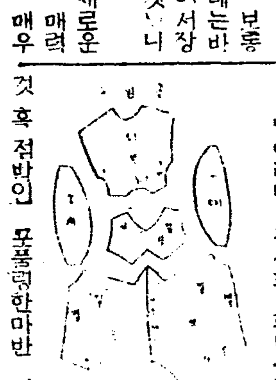
그런데 보시는 이모양은 옷감만 적당하게 선택하면 남아에게나 녀아에게나 입힐수잇는 스타일 입니다

보시는 바와가티 우는 보통 남복처럼 되엿스면서 아래는바지모양으로 된까닭에 집에서장난할때입히면 퍽 시원할것입니다

이모양은 금년에 가장새로운 스타일인데 단순하면서도 매력잇는 모양이며 만들기가 매우 간단하니 누구나다 만들어보시요

(一) 재료

남아라면 곤색과 흰비즈 것혹 점박인 포풀링한마반 녀아라면 붉은빗 혹은 [illegible]나 정색의 포풀링한마반 장식단추한개 스냅여섯개 고무줄한개



(二) 본뜨는법

그림을 참조하야 그려가지고 그림의 굵은줄대로 베면 됩니다。그림의치수는 전부센치를표준으로 햇습니다

쪽압은 우아래가 떠려저잇는까닭에 세조각 쪽압외편과압바른편 입쪽바지를 말너야하고 뒤는 그냥한조각으로 맘읍니다

소매도 한조각만 말느면됩니다

(三) 옷감마르는법

옷감을 떠노코 압외쪽하나 바른쪽하나 압쪽은 두조각 뒤쪽은 가운데와옷감바로로 접은데와 맞추어서베고 소매는 두조각 말느면 되는데 모다 사은 一센치가량덧부처서베닙니다

(四) 짓는법

(裏合圖)를 참고해서 짓습니다

다 먼저 압흘 가운데 솔기까리 맛추어박되 우에서 十센치를남기고 박습니다 이十센치는 압가운데로노아 스냅을달아 고벗기조케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외편과바른편의 솔기에 맛추어 압바지 량편에 잔주름을 잡아 답니다

그리고 억게통을 박아서 펴노코소매를 한다음에 엽솔기를 박습니다 다음은 압여미는데 한쪽조각을 대고 가랭이에도 다른조각을 거죽으로대서 안으로 넘기여 박고스냅을답니다 바지부리는 단을 一센치五미리 넘이로 꺽거박고 고무줄을 너흔다음 압길에 장식단추를 달고 소매부리를 꺽거박습니다

이것으로 그림에 보시는 모양이 다되엿스니 잘대리여 입히십시요 (洋裁專家 任貞爀 氏 寄)

어린애기들의 건강여부를 아는법

외양을보면알수잇다

어머니는 어니때나 어린이에 대해 그관심하는바가 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식하기때문에 귀여운 어린이의 건강여부를 잘몰으는일이 만습니다 이제 거긔대해 간단히 참고할 그면가지를 소개하겟습니다

×

▲얼골 혈색이조코 통통하게되면 건강하기만 주름이 잡히거나 또살이써서도 살빗치나뿐애는 물건강합니다

▲눈 똑똑하고 활발한애는 건강하나 흐리하고 둔하게울직이는애는 물건강합니다

▲젓 석육먹고 토하는애는 물건강합니다

▲수면 고요히 잠을 잘자며도 조그마한소리에놀래깨지안는애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물건강한애는『강코 롤플고 잠을잘못드는데 또 잠들엇다가도조그마한소리에 눈을잘깜니다

▲배 둥글고 고무가티 탄력이잇는애는 건강하고 뜬뜬하거나 망신망실한애는 약합니다

▲오줌 건강한 애는 만코 또 내음새가 업고 말그나 물건강한애는 오줌도 만치안코노란비입니다

▲대변 하로에 두번내지 세번식누는데 반숙된게란빗을가진애는 건강하나 회수가잣고거품이 석기고 악취가 나거나 물과가트면 물건강합니다

▲우름소리 회차지만 부즐업시울지안는애는 건강하지만 소리도약하고 자조우는애는 물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점을주의하서서 어린이 양육에만히주의하십시오

간단한 화장약과 머리털 보드랍게

우유를받는집에서는 매일우유가 남습니다。우유를마시고나면 아무리해도 병밋헤 우유가 조금남어잇게됩니다 보통은 그대로 병을 돌려보내나 그병에 물을넛어 흔들어서 흔들리가지고 그것을 손에바르어 쓰다서 얼굴에바르면 피부가연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매일 이저버리지말고 아침저녁으로 하면 아주효과가생깁니다。

◇

머리털이억세여서 말을 듯지안는분은 뽕나무뿌리의껍질을벗겨서 이십『몸메』를 헝겁주머니에 너어가지고 다섯홉되는물에 끄려 물이세홉쯤되엿슬때 끄려내여서 머리비슬때마나 그물을바르면 머리털은 보드러워지고 빗갈도조화집니다

交換台

싸홈하는이웃가저때문에 소란해견딜수가업습니다

問 저이집은 시내체부동에 잇사온데 이웃집이 소란하여견딜수가 업습니다 밤이면 마작(麻雀)으로 싸홈을하고 낫이면 내외싸홈으로 소란합니다 그뿐더러 부부싸홈이 낫만이 아니오 밤에도 계속하야 열두시는 보통이오 새로 세시네시가 되도록『날죽여라!』소리를 치는여사의 목소리가 끄님업시나니이 일을 어찌면 조흡니가? (體府洞 一齋番生)

答 거 어데 견될수가 잇습니가? 더구나 어린애이 자든잠을 소스라처깨여 놀라는것은 말할것도업고어른들도 견될수가 업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애들에게는 여간큰 방해가 안입니다

그러하야 한번그주인을 불러가지고 수차말을햇스나 조금도 듯지안코 매일매일 계속하니이

한번말해안드르면 파출소에막하시요

답 첫재 이웃을 생각지안코 그러게 소란스럽게 군다는것은 도덕상흐일입니다 더구나여러번 주의를 식혓슴에도불구하고 그리한다니 그것은아-조 부도덕한 사람들이명확합니다

그런데 낫에싸호는것은 할수업스나 밤열두시가 지나서도그러타면 이는 이웃도덕에도 위반되는것은 물론안면방해로서경찰범처벌규측에도 위반되는일입니다

그리므로 한번더 그진사람에게 말하여 듯지 안흐면 그큰처 파출소에가서 말하십시오그려면 이것을 제지할수가 잇슬것입니다 (一記者)

家庭醫學

두통이심한데

問 삼십세남자인데 약칠팔개월전부터두통이시작되더니 지금까지계속하며 점점심합니다 그증세는 거령다니던지 뛰던지, 책을보던지 이러나던지하면 두통이심하고 기억력이조곰도업습니다 주사를계속하여마쳣가하옵는대 무삼주사약을쓸가요 또는 내복약으로 적당한것을가라처주시요 (南川 生)

답 주사약은 의사외에는할수업스니 병원에가서 무르십시오

[illegible] 적당하올고 내복약으로는 좌겨처방을 한주일간복용하야보십시요 흔적업시나흘것입니다

아스피린 一、○

미크레닌 一、○

鹽酸고데인 ○、○六

白糖 ○、六

右藥을三包로 一日三回食間服用 一週日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장이잘안와

問 저는시골에세미혼남자인데 일년전부터선홍증이잇고 소변을자조봅니다 자리에누으면눈물이남니다 또잠이잘오지안습니다 병명과자택치료법을 하교하야주십시요 (求醫一讀者)

답 당신이말한 선홍증이란거시어던것인지 모르겟습니다。소변을자주보고 누으면 눈물이나고잠이 잘오지안는것은 특별한병인것갓지안습니다 운동을 충실히하고 공상을말고 열심으로 공부하면 여러가지 증세가업서질것입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신장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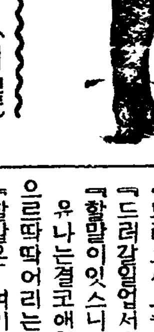
問 사십세된 부인인데 반년전에채소를먹고 체한것을곳치지못하고 잇던중사개월전부터 신장염(腎臟炎)이되며 전신이부엇슴으로 양약을복용하고 부증은 나엇스나 종시배속이더지는것갓고물을조곰마시어도 각갑하고숨이차며 가슴이답답하고 기침이 심하고속이벌벌합니다 무삼병입니까 어떠한 치료가적당할습니까 (一問醫生)

답 당신의발병초시를 생각하오면 신장염이것갓기도 하오나 지금의증세로만보면 심장병(心臟病)인것도갓습니다 그구별은한번진찰하지안코서는 확실치못하며 따라서치료법도 밝심하기곤난합니다 좌우간에 절대안정(絶對安靜)할거시고 수분을적게마시며 음식은채소식을잘주의하시고 진찰후복약은 선택하심이 조흘뜻합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배꼽우헤뭇치

問 삼십이세된 녀자인데 오래전부터 한달에한번식 소화불량으로 한주일간고통합니다 그것이심하면 이질이됩니다 작년여름부터는 배꼽위에 손바닥가튼것이울죽이고 미음이던지 냉수를마시여도 체합니다 여러방법을하여도낫지안코『게오-』란약을복용하야도낫지안습니다 무삼병이며어찌하면 낫겟습니까 조흔방법을가라처주십시요(秦大女性)

答 당신증세로보면 십이지장궤양(十二指腸潰瘍)이 만성이되야 그관이 좁아저서 그리된것갓습니다 큰병원에가서 엑스광선을빗최고 심하면수술을하여야될것입니다 복약으로만은 낫기어려우니 음식은유하고 자극성이적은것을 택하야 자시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一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一、물오리(宋)二、정다운고향(宋)三、시내물(朴)四、개암이(朴)五、크다란꼬(?)(朴)六、소꼽질(朴)七、산골짝(宋)八、무지개(宋)九、강남간제비(宋)十、南山山路(宋) 宋甫先 朴昌姬 伴奏 鄭明軒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同八時 趣味講話 明倫學校講師 金台俊

◇同八時三〇分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봉노리打鈴 三、사철타령 四、동그랑打鈴 五、新寒燈歌 六、베잣는노래 [illegible] 大 金永煥

◇同九時 라듸오·드라마 [illegible] 全一幕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明劇調 一、[illegible] 二、明劇調 江上에둥둥 赤壁歌 鼓手 池龍九 丁正烈

二日(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호박씨 白〇彬

◇同二時 家庭時間 家庭과娛樂 李〇淑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밝가버슨임금님(全二景) 大道教京城少年部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歷史以前의이야기(一) 徐元用

◇同八時 趣味講話 朝鮮民謠의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illegible] 二、白[illegible] 大 金永煥 李月[illegible]

◇同九時 洋樂

◇同九時四五分 講話 一、[illegible] 二、[illegible]

◇午後〇時〇分 家庭時間 [illegible] 과거지사定합 [illegible]

◇六時五五分 産業뉴-스에 經濟解說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八時〇分 趣味講話 朝鮮民謠의現實性(二) 明倫學院講師 金台俊

曆

七月二日(火)

陰六月癸未(小)初二日

●祭祀에宜함

巳·卯·土·尾·收

▲小暑 八日(陰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陰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陰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陰六月廿四日)

유-모어小說 望夫石 【五】

金熊超 作·畫

復習(七)

분이 머리끗까지치미러서 잠시동안은 아모말업시 서잇섯다。그러다가겨우 마음을도첫다 자기에게 아모런잘못이업고 억울한욕을당햇다할찌라도 상대자가녀자요 처지가 맥량한처지이니만큼 큰마음을먹자는것이엇다 그러나 분푸리는 그만두러라도 이자리에 가치안자잇슬수는 참아업섯다。

『그럼그이상 말슴안드리겟습니다。내가 지금 이모욕을 당코 가만잇다고 못생긴녀석으로 아시고 우월감은가지마시기를바랍니다 나는 모든굴욕을참고 최후까지 유나씨를 숙녀로 대우햇슬뿐입니다 그럼 편히안지십시요 나는유나씨의괴로움을한시밧비 덜어드리기위하야 이자리를 떠나드리겟습니다。』

재호는 모자와 웃저고리를들고 박그로나갓다。그리고는 미다지문을 닷고 툇마루끄테서서 양복바지를벗고 웃저고리와함께돌돌마럿다。륙십오원에마친 월부양복을 막우대우하기는 너무나 가슴저린일이요 잔인한 일이엇다。

막 구두뒤축을 눌러신고 마당으로 내려섯판에 유나가방문을 열고 재호의 한팔을 웅켜잡앗다。

『어데를 가서요?』

『이울안에 잇서도 마음이 안노이실테니까 아주 멀리 가드리지요』

『어디를요!』

『서울로가지 별수잇습니까』

『안돼요』

『왜안돼요?』

『드려오서요』

『드러갈일업서요』

『할말이잇스니드러오서요』

유나는결코애원하는것이아니라 으르딱딱어리는셈이다。

『할말은 여기서못하나요?』

재호는 유나의태도가 달라지니까 한칭더빽빽이 버틔고십헛든것이다。

『가실때가시드래도 내말을듯고서요』

유나는 볃섬무게나되는 재호의몸뚱아리를 이를악물고 끄러올렷다。

『신발을버스서요』

재호는 명령대로햇다

『인제는 드러오서요』

재호는방에끌려드러갓다。그다음명령을기다리고 서 잇섯스나 샤쓰바람인것을깨닷자 면구스러워서 곳 바지를입고마럿다。

『안지서요』

재호는 명령대로한구석에 안지면서 다음말나오기를기다렷다。

유나가밥상을 재호압흐로 미러노코먼저 수까락을드럿다。그리고 한결 부드러운목소리로입을여럿다。

『자 잡수서요 제가실례한일은 다 용서하십시요 박선생을 못미더한것은아니고 저에게는 말못할사정이잇서서그랫답니다。엇재서그랫냐는것은묻지마서요。요다음긔회에 다말슴해드릴테니 결코 저는 선생님의행동을 오해햇거나 음흉한맘으로 생각지는안햇서요。용서 하서요 네? 저도 퍽 히스테리-쯤이 잇는 녀자지요?』

한껏 매력잇게 방그레-우스면서 술까지 떠렷다。

——조변석개라드니 녀자의마음은 엇재서 저 꾸?

재호는 어이가업서 좀더빽빽이구러볼까하다가 뱃속이궁해서 이어 수저를들고마럿다。

『악가 호박잇느냐고 무르시드니 어되드려와서요?』

유나는것가락을 처들고밥상에노인반찬을 고루살폇다——나제와는좀달리차린다고한모양이나 튀각에、도라지무침、일본반찬멋가지는 여전히노히고、호박은안노엿든것이다。

『이것을절에서는 호박이라고그럽니다』

『고기군것아니요』

『내-그래요』

유나는 한가지배왓다는듯이조와서 눈을깜작깜작햇다。

『절에서는 원래고기를 안먹는데거든요、그런줄을잊고 고기장사가 고기를팔려올때는 고기사란말을안코 슬쩍 호박사시요! 한답니다』

재호는 가장잘아는듯키 유래를말하얏거니와 유나는 밥에서 금모래나 발견한듯이

『엇저나!호호호……』

하고 대단한명랑성을띄웟다。

저녁울꿋낸뒤에 두사람은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탈선안할정로하다가로마츰내 재호가 일어섯다。

『그럼 일쪽 주무시고 래일아춤에 일쪽일어나십시요』

『다른방하나 치우라고 부탁하셋서요?』

『인제 학착정입니다』

인제 겨우부락한다면악가가태서는 벌서 유나에게 책잡힐소리엇다。

『그럼 안녕히주무시십시요래일뵙겟습니다』

『안녕히주무십시요』

재호는 박그로나가신발을신엇스나 주인을불러 방하나 치워내라기도 난처한노릇이엇다。

皮膚病에는 무엇보다몬저 데-무水

皮膚는身體의 第一線이다。第一線을犯하게되면오는 將來에生命까지威脅밧게된다。皮膚病良藥데-무水는 身體第一線을死守하는 勇烈한姉妹이다 騎士다。時期는正히皮膚病의跳梁跋扈하는時節이다。各家庭에 皮膚病良藥데-무水의一瓶을求하야 皮膚病襲來에準備하시라。

이러케도 잘듯는다

皮膚病藥中에서 皮膚病良藥데-무水가第一好評을博得하고잇는理由는데-무水에具備되야잇다。

殺菌 消毒 收斂

各作用이 優秀하고더구나쓰리지안코、압흐지안코、근적근적안코、안더럽고氣分조흔물약으로痛痒을除去하야着着完快한다。

可恐할 皮膚病의毒

皮膚病毒素는血液에들어가서 全身에 循環됨으로、慢性皮膚病을等閑視하고잇슴은腦病、神經衰弱、腎臟病、血管硬化其他意外의餘病까지惹起식힌다。黴菌을아지못하든古人들은皮膚病이란體內毒이外部에發現된것으로治療하면內攻된다고말하나 그는實로可笑할迷信이다。데-무水로 治療한슴內攻될걱정업고 短時日中에皮膚病治療의目的을到達한다。

主治効能

마른옴·음부습진·무좀·옴·대독·腫氣·진무른데·고름·농가승·헌얼룩이·버짐·唇肛門진무른데·여드름·죽은깨·벼룩·모기·박쥐·毒虫·빈대의刺傷皮膚痛

데-무水藥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全國到處藥店에서 販賣함、萬一切品時는 代金을添付하야 左記發賣元에注文하시면 時速發送하여드림。

模造藥만흐니 꼭데-무水라고 指名하야求하십시요。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二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털나는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의創製로써털나는데必要한、適當한殺菌、興奮、榮養의三作用着象하야꼭草木에對한土壤、日光、肥料에도比할만한良藥이다。반다시털이不足하고모양업는분은試用하시라。定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全國藥店에잇슴。

說明書進呈前記東京藥院申込次第進呈

복통과설사에 糖衣 아도-스錠

炭素吸着療法

吸着療法이라는것은腹痛泄瀉에對하야普通使用하는下劑療法과가타單只腸管內容物을排泄하는것뿐만아니라고藥物의吸着作用을應用하야腸管內에停滯하야中毒症狀의原因을成한毒素或은病原菌等을特히吸着하고更히胃腸壁粘膜의損傷部又는潰瘍까지도被覆하야腹痛을鎭靜케하고便通을整齊하는바所謂學理와臨床과를合致케한合理的療法입니다

따라서一般腹痛泄瀉에對한아도-스의療法은身體에倦怠疲勞等의副作用을感케하지안코奏効하야治療의目的을極速히達할수잇는理想的療法입니다

설사와腹痛은 勿論

虎列刺、腸窒扶斯、痢疾疫痢等의疑心이잇스면于先아도-스錠을服用하시오

아도-스錠은非常히强한吸着作用을가진活性의植物性炭素로서此를服用하면腸內의黴菌과毒素、粘液、有毒物等을獨特한吸着作用으로不絕히吸取하야조곰도腸을損치안코體外에運出케합니다 또腸壁에생기는 潰瘍面이며、糜爛되든粘膜의 損傷部까지도 말짱이낫습니다 무엇보다 큰證據는全國各大學病院이며傳染病院에서 採用되야『痢疾虎列刺痢를아도-스錠만으로全治하엿다』『急性大腸加答兒를一日에 快癒케하엿다』等專門家의實驗報告가雲集되여잇습니다。換節期에는腹痛泄瀉가가장만흔때입니다 이러한때에는胃腸과體力이大端이弱하여진때이므로 一日이라도더두는것은 危險하오니 速히아도-스錠을服用케하십시오

適應症 一般下痢、鼓腸、醱酵性下痢、急慢性腸加答兒、胃酸過多症、慢性便秘、疫痢、赤痢、虎列刺、腸窒扶斯、食餌中毒、藥物中毒等에特效함

白錠 二十錢·五十錢 一圓·三圓五十錢 黑錠 六十錢·二圓

京城府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大阪道修町

KA—56

少年詩人金君山論 (七)

君山의 交友詩 (三)

—苦屈·談道·論詩—

李殷相

君山의 交友詩中에서 먼저 思友人以外에도 그의情懷를 담은作什을 만히볼수가잇다。이제 數三篇을 抄하야 보이리랑。

思友人

산깁허 세상소식
끈허진곳에
다만지 솔방울만
떨어지노나
구슬가튼 샘물은
돌돌에울고
새들은 옛나무에
지저귀는데
그립다 저내동무
보고십건만
어느제 만날긔약
바랄것이서
호올로 찬솔안에
지엇노라니
해는지고 이내마음
설어울고나

(原詩)
深山隔絶處 唯有松子落 瑤泉鳴石響 幽鳥啼古木 耿耿懷我友 佳期不可望 獨倚寒松下 日暮意惆悵

이詩는 十四歲時의作이오、또同年의作으로도 呼韻에應하야 부른노래가잇다。

呼韻

호올로 다락우에
안잣노라면
해지도록 門바래
찻는이업고
예동무 가잇든길
멀리그리며
울려오는 鐘소리만
듯노랍니다。

(原詩)
江樓獨坐對寒松 盡日門無車馬蹤 却憶故人蕭寺在 時時但聽出山鐘

그리고 또이런노래를보자—

携諸君泛舟

고요한밤 淡湖에
배를띄운채
물ㅅ가에 저녁연긔
거치는고나
뱃전베고 한곡조
노래부르니
세상생각 오늘밤은
그만이로세

(原詩)
[illegible]

이詩는 十六歲時의 三月初八日에 諸友와함께 泛舟하야 舟中에서 읊은노래니 實로 아름다운詩品이다。

또이詩와 거이同月日의 作品으로 卒業하고 離散하는벗을 보내는 노래로 이런것이잇다。

送院中諸君

내일이면 나는도로
山으로가네
잘가게 漢陽으로
가는그대들
쉬실이 푸른버들
꾀꼬리노래
모래는 히고희사
풀닢도조희
잔가득 부은술에
취하여한듯
바라보니 놉고나즌
靑山이로세
배는돌려 아득아득
저쳐오엽고
물우에 지는해를
우는이마음

(原詩)
明日吾將歸故山 今朝君獨向漢陽 [illegible] 落日江天心惆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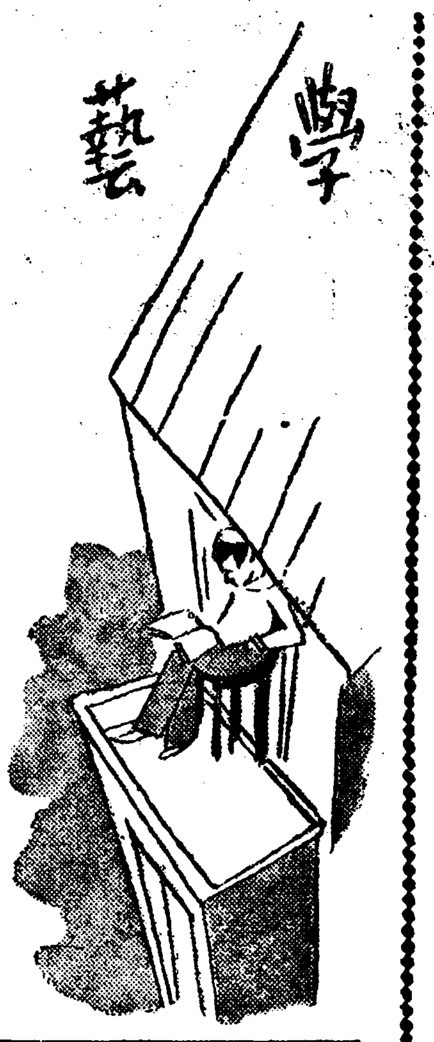
그는 이가티 同窓學友의 작별을 보내면서 江ㅅ에 외로운 노래를부르던것이다。

果然 그自身의말대로(十八歲時作 州城客句中) 그의親舊와兄弟는 모다散落하엿다 그러나고 다시 친키때문에 그들은 서로를떠나 뒤를 바꾸고저한것이다

君山에게는 諸友外에 思慕하고 理解하는 舍兄一人이 잇섯스니 그는 金太冲이란이엇다바 서로 往來하며 同宿하야 밤이깁도록 談道論詩하기를 즐겨하엿던것이다。

十八歲時의가을에 지은노래로 『舍兄重齋谷他州、況復人生易白頭』라하야 無常한人生을 읊하고서 『試問東村太冲氏、能來一宿共寒燈』이라하야

同宿을 請하엿음이 잇스을보면 또한君山의心意를알수가잇다。(未完)



學藝

文藝時評

六月創作界一瞥 (4)

李源朝

李北鳴氏作『午前三時』(朝文)

이作者가 다른이에比해서 特殊한色彩를가지는것은 作品의題材를 늘 工場이라는生產面에서 取하는것일것이다。그러나 이作品을본다면 藝術的意味에서『題材』를 工場에서 取했다는것보다『背景』을

工場 에取했다는것이 더適切할는지 모를것이다。왜그러냐하면 紡績機이나 織絲機이나하는 無數한機械의일홈을 만히쓴것으로 工場이라는것을 그리기는햇스나 工場의 가장重要한要素인 生產하는人間을 그리는데 넘우單調하고 無味하기때문이다。만약 훌륭한作家의눈을가지고서 이러한 工場을 살펴본다면 그안에잇는 人間과 人間의關係가 이作品의 內容보다는 훨신더深刻하고 切迫한問題가 얼마라도 잇슬 것이다。그러나 評家가 作家에게 題材의好否를 云云하는것이 萬若

限界 限界를 넘은일이라면 이作品만으로서 이야기를한다고 하드래도 背景은 넘우컷고 事件은넘우單調한데다가 描寫조차 것넘어가서 한개의公式的『해피엔드』만 짓고 아모런 深刻味나 緊迫感이업다。短篇으로서는 登場하는 人物도만코 셋팅도커서 作者의意圖만은 一時 프로레타리아文學이 個人을 그리는것보다 群衆을 그리려하고 될수잇는대로 作品의 스케일을 크게하려든手法을 적히려햇스나 이作品으로 보아서는 意圖의背景은巨大해조흐나 作品의살은하나도붓지안엇다。그래서

作中 에나오는 사람들도 모다 作者가 일홈만 지어논것갓고 하나도 우리가 感興할수잇는 現實的人物에 가는 實感을주지못햇다。그럼으로 나는 이作家에게 좀더깁히잇는 作家의눈을가지기를 바라고십다。엇더한作品이든지 남의 心琴을울리는 데에는 스케일이 크드지 人物이 만타든지해서 넓히가잇는것보담은 한사람의身邊雜事를 그려도 깁히가잇서야 하는것이다。그리고 文章의 修鍊도 훨신 더해야할것갓다。

金光洲氏作『南京路의蒼空』(朝文)

作品을 批評할때 그主人公을 곳作者이라고 보는것은 批評家로서좃치못한일일는지도 모를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作品을읽으면서 作者는面識도업스나 主人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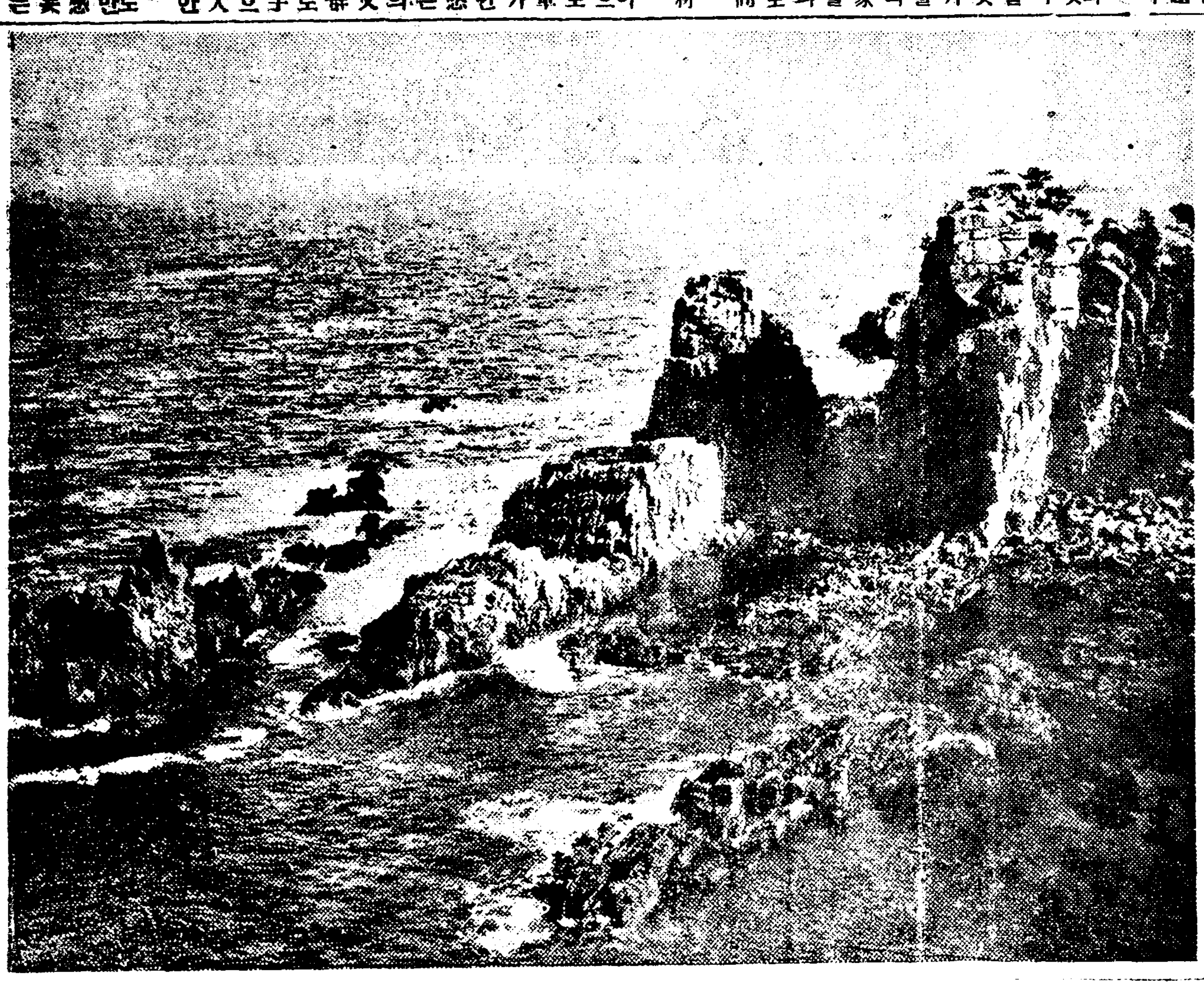
文學 靑年 明洙가곳 作者인것가햇다 그것은 作者가 作品과떠러저잇는痕跡이하나도 보이지안흘뿐만아니라 全作品이 곳作者의獨白이다 그럼으로 이作品은 三人稱으로 되여잇스면서도 一人稱以上의詩와갓흔性質을가젓다 다시말하면 作品이 作者를떠러저서 客觀的으로 獨立한 立體感을가지지못하고 作者의입에서 부르지저나온 그대로이다 그럼으로 明洙가그 누의와하는 對話는 對話로서의 現實感이업고 文學靑年의 편지를읽는것갓다 아니 실상 이作品은

作者 의興奮가운데서 씨여진것가치 全篇이 文學靑年의感傷的인 正義觀에서 나왓는 것이다 이作品은 아직 小說로서의距離가좀먼것갓다。作者는 모름직이 좀더冷靜해질必要가업슬가?

金沼葉氏作『끝업는平行線』(朝文)

이作品은 그氣分에잇서서 李北鳴氏의作品과 金光洲氏의作品과의사이에잇는 中間型이라고할수잇다。李氏의作品이 빽빽만생긴데比해서

金氏 의作品은 한숨뿐이라면 이作品은 좀 未安한말이지마는 철이드럿다고할수도잇다。그러나 엇더한作品이든지 讀者가읽고난뒤에 그作品의뒤가궁금하게되면 그것은成功햇다고볼수업는것이다。이런意味에서



東海滄浪의誘惑

史外異聞

黑水激戰

湖岩

世宗때 일즉 東征北伐한 일도잇섯고 光海때 明을 도와 滿을 친적도 잇섯지만 孝宗때 羅禪討伐처럼 興味잇는 史實은 드물것이다。이는朝鮮軍이 四千里遠征을 한것이 [illegible] 아니라 朝鮮과 羅禪를 代表한 黃白人의 衝突인點에서 그는 [illegible] 또는 戰爭의結果 我勝彼敗하야 [illegible] 스러젓다는點에서 그는 [illegible] 아니라 이모든것을 다젓거

노코 黑水를舞臺로삼아 滿虎가 서로싸웟다는 그것만으로도 벌서 우리의 無限한 好奇心을 자어내는바 잇다。當時에잇서서 羅禪은 이미 新銳한 武器를 使用하며 또巨大한 戰艦을 가저 그兵力이 자못 精强하엿섯는데 [illegible] 火箭을 쏘와 敵艦의 火藥을 爆發케하는 自來의 [illegible] 이때에도 만흔效果를가저왓슴이다。當時 黑水激戰의狀況을 傳하는 [illegible] 車漢日記 一節에 갈오되 「我將이 火攻의策으로서 [illegible] 淸元帥가 그貨物을 利로하야 도지아니하다가 勢窮한後에 이르러 許하엿다」 [illegible] 江陵를따라 내려 [illegible] 二人이 서로 말하가

를 [illegible] 모다焚破로 결하엿스니 火箭을쏘고 爲하야 [illegible] 避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illegible] 하야 배를마치니 一時延燒 하며 風雷가大作하야 天地가 [illegible] 배를도리켜 [illegible] 淸人이 모다痛하야 갈오되 [illegible] 朝鮮의힘이라하엿다」 [illegible] 將의主張하든 火攻策에 對하야 反對하엿스나 그것을 不 [illegible] 그火攻을 實行함에 잇서서 도 역시 我將의힘을 빌게

되것과 그리하야 火攻의 結果는 아주良好하야 敵艦이 一時延燒하는 成功을 거두게되것을 알것다 淸人들이 이戰捷으로써 朝鮮人의힘에 돌리는것이 當然하다 淸元帥가 그때에 盛宴을設하고 我將을 招待할새 그妻三人을시켜 我將의압헤 最高敬 [illegible] 우리朝鮮軍에게 對하야 얼마나 感謝히 녁히든것을 알것이 아닌가 淸元帥의妻三人이 한팔을 들고한팔을 드리우고 恭順히 禮를하며 나와 서로 얼굴까지 마주대엿다한다 이것은孝宗九年 戊戌(一六五八)第二次北征時에 朝鮮軍의男勇과 어울러 닛지못할 아름다운挿話의 하나이다。

樂器音樂에價値極大의

電氣應用의新樂器

【바사데라(캘리포니아州)發聯合通信】最近 캘리포니아工學研究所의 電氣技師 알렌스미스는 電氣를 應用하야 新樂器를 考案하엿다。

이新樂器는 놀랄만큼 高壓機로부터 나오는『올간』을 利用하야 오—케스트라 演奏와 同一한 綜合的樂効果를내라는데잇다 스미스氏는 音階에 따라서 빗치를 變한 數個의 變壓機를 가지고 여기에 樂譜대로 스윗치를보면『올간』은 完全히『音樂』을 奏하는것을 實驗하엿다。이 理論을 應用한 新樂器는 피아노와가티 키—를 뚜드리게되여 音樂은 여기에 附屬한 라우드스피—커—로부터 흘러저나오게되엿다。

그런데 이樂器의 特色은 키—에對한 음의 强弱으로 高音低音이 自由로 調節되여 나아오는 點이다。이것은 開閉하는 高壓機의 回路에 잇서서의 抵抗接觸點을 利用하는데잇다。即 强한 키—를 뚜드리면 接觸이 强해지고、高壓機의 充電量은 增大함에따라서 『올간』은 커지게되는까닭이다。이 綜合的音調는 交響樂에잇서서 모—든 樂器에 類似하고 따라서 이 樂器에잇서서의 利用價値는 極히 크다는것이다。

想華

언덕우에선草家 (中)

高淸民

어떠케 울려왓슬까。意識的努力—살아가기爲해서는、그全部를 바처도 오히려 배가 곯을텐데…나는 이 하잔흔 努力앞해 衷心으로 머리를 숙엿다。내머리에는 워즈·워드의우·어·세분이 떠올랏다。

장꽝곁에는 닭의둥이 잇섯다 닭은파란는지 업섯지만은。집곳 채소바리에는 외것이 다심거잇섯다。호박、배채、갑자마늘、콩……。나는몬라、自足自給으로 아모런 不足을 餓進志士의 心境을 想像하엿다。그리고 이草家의 主人에게도 自足의 幸福이 잇슬것가탓다 맛나서 이야기를 해보면반다시

나는 도라섯다。언덕곳해서서 들을 내려다보앗다。올뭇편에는 五里나빼친 숲、원

劇藝術研究會

第八回公演延期

◇上演台本檢閱不通過로

市內仁寺洞에잇는 劇藝術研究會에서는 七月九、十、十一日三日間 朝鮮劇場에서 第八回公演으로 柳致眞作「소」(全三幕)을 上演하려든바 檢閱不通過로 不得已 延期하게 되엿는데 來九月初에 阿部—토리를 變更하여 公演하리라한다

그리고 劇研第四週年 記念式(七月八日)도 九月로 延期하기로한바 그동안은 映畵鑑賞 라디오드라마等을 하리라한다

싸베트에서

建築博物館

【모스크바發聯合通信】싸베트 建築學會에서는 今回一般民衆에게 建築의槪念을 普及하고 싸베트新建築의 性質과使命을 鮮明하게하기위하야 建築博物館을 모스크바에세운다 기로決定、업어들 籌備하고잇다。建築博物館은 古代中世、文藝復興期、近代로나누어 그時代의 建築을展覽하는外 로시아古寺院、王宮等의代表的建築、싸벳트新興建築의模型等이 出品될터이라한다

改嫁 한개라든지 조군의 누의가 될터간事實을 그럼으로 이作品과가려 作者는 여러가지로 말햇스나 그 조군의 家族이 沒落해가는것을 그리려햇스면서도 오히려 그作品의 背後가 더궁금한것이잇다。현재의 젊은이에의 悲哀와苦惱를 다시 궁금하게되는데 이作品은 이러한때문에 조군은 술을먹고 나는 그술먹는것을 이상히생각는다 一다는것보담 그술을먹게한原因을 現實的으로 그리는것이 더낫지안흘가 하는 나는 이作品을읽으면서 우리가 現實에對한 그 知識과 體驗이 얼마나 貧乏한가를 알엇다。

나는 이作品도 그다지 큰 흠은업스나 未熟해서나는데도업는 平凡한程度이다。

德壽宮美展

日本畵를陳列

李王職에서는 德壽宮石造殿에今般京都側日本畵家의 新作品을陳列하기로되엿다 期間은 七月一日부터 同三十一日까지로 出陳十五點 南畵의大家 水田竹圃의 秋山樵唱、川村曼舟의細雨空濛、西村五雲의『今朝의花』等의 逸品이잇다

강도 (23)

『나도 모르고 당한일입니다 엇 더한 사람들이지 무슨 리유인지 도모지 알지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운밤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폭행을 하는것은 대단히 위험한일인데 그러한위 험한곳에 단신으로 드러가서 그사람들을 물리치고 죽게된 사람을 구해주는것은 대단히 용감한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겟습니다』

『그게야 사내자식으로는 맛당히 할일이죠 조금도 칭찬할것이 업습니다』

『나는 죽은사람으로 당신의힘을 입어서 다시 사라낫스니 그은혜는 무엇으로 갑하야 오를는지 모르것습니다』

『적은일로 큰 칭찬을 밧는것은 도로혀 부끄럽은 일입니다 치료나 잘하서오 나는 가것소』

하고 왕한은 이러나서 가랑 하엿다

소옥은 놀나는듯이 왕한의팔을 부들며

『가다니 될말이오 여기서 나와가치 쉬시고 차차 할일이 잇스니 이야기나하고 가치쉬십시다』

『아니올시다 가서보고 안될 일이 잇스니까 가서보고 후일에 또 오지오』

소옥은 여러번 만류하얏스나 왕한은 듯지아니하얏다

『그러면 래일오시오』

하고 소옥은 애원하듯이 말을 하얏다

『래일이나 모레나 계제잇는대로 오지오』

하는 왕한의 태도는 입종행 당한듯 하얏다

『아니 그러케할 말슴이 아니라 꼭 오십시오 주소가 어대신가요 아니오시면 차저가겟습니다』

왕한의 대답이 랭담할수록 소옥의 요구는 더욱 간절하얏다

『객지에 잇스니까 주소도 일정치 못합니다 그러면 수일 후에 다시오지오』

하는 왕한은 시침을 떼고이러서 나오다

소옥은 왕한의손을 잡고부대 다시오라고 여러번 부탁하며문 밧게까지 나와서 전송하얏다

소옥을 작별하고 거리에 나서서 전등과 전등새이로 자긔의 그림자를 밟으며 오라오는 왕한은 자긔의 계책이성공된것을 깃버하얏스나 여러가지로생각이 괴로웟다 자긔가 식혀서 소옥을 결박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쪼차오는듯도 하고 또는 그사람들이 경찰에게 잡혀서자긔의 사실을 숨김업시 고백하는듯도 하얏다 그리하야 잇다금 잇다금 스스로 놀내엇다 또는 그사람들이 잡히지 안는다할지라도 소옥에게 대한 뒤일을 엇지하여야 무사히 될까하는 생각으로 자못 염려되얏다 소옥은 왕한을 보내고 자리에 누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얏다

『그놈들이 웬놈들일까 혀명당의 암살대인것이 사실일것이다 그런데 나를 구해준 허철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남자이다 남의 급한것을 보고서 모험하고 구원하야 주는것은 의협한 사내이다 그러면 그사람에게 돈을주는것보다 다른것으로 은혜를 갑는것보다 그사람을 교육을식혀서 국가의 인재를 만드는것이 조흘것이 다 그사람이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끼치고도 언어수작이 당당하고 태연하야 조금도무엇을 구하는 태도가 업는것을 볼지라도 그사람의 인격을 알수가잇다 더구나 그사람이 로동복을 입엇스니형세가구차한 사람일것이오 또 내가 경찰청장인줄은 모른다할지라도 나의집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나로는 보지아니 할러인대나에게대한 태도가 그와가치 냉담한것은 더욱이 가상한일이다 하여간 나는 죽은사람이 그사람의힘으로 다시 사라낫스니 나도 그사람에 대하야 그만한 은혜를 갑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이러케 생각하는 소옥은 자기의 은혜를 갑기위하야는 스스로 은혜를 갑흘뿐아니라 왕한의 구청이 잇다면 무엇이든지 드려주기로 결심하얏다

黑風 (67)

韓龍雲 作
金熊超 畵

おいしいもの中元の進物に これこそ考へて見たけれど結局どりこの に決めました!!

여기에 意義잇다

膳物를 보내고 손님으로부터

『조흔膳物를 밧엇다 아—고마워!』

이런말을들을때와갓치 滿足한일은업슬것이다

무엇보담試 입니다 『도리고노』를보내여보십시요 반드시저쪽便에서는깁버하실것입니다

그것은무슨까닭?

「도리고노」는다만달므로歡迎을밧는것이안이라면으면滋養이되고體裁가美麗하고、갑싸고、老少엇던분에게든지조흡니다。

中元엔勿論 四季의贈品에 問病에暑中人事에널이贈答品으로쓰게되는것은이때문입니다

全國著名 藥店、食料 品店에잇 습니다

發賣元 ● 東京小石川 ● 大日本雄辯會講談社商事部

おいしいもの中元に どりこの

도 리 고 노

D—390

黃海産業의動脈線
海、瓮間鐵道敷設
今年中에起工키로決定

【海州】산업황해도의 국제 인동맥으로서 그전도가촉망되는 해주옹진선철도부설(海州甕津線鐵道敷設)문제는 황해도민의 운동에 매진해오든바 드듸여금년도에 그실시공작에 착수키로 되여 우선해주취야간(海州翠野間)의 측량을진행중이것도임로되여 공사는최근부터착수하야 해주역(海州驛)으로부터서변면사무소(西邊面事務所)압흘경유하야 취야(翠野)를거처 옹진(甕津)까지개통하리라는데 금번내에는 서변면사무소압까지나공사가 진행되고 옹진까지의개통에는 상당한시일이 걸릴모양이라한다

그런데 해주장연선(海州長淵線)도 부설예정선으로는 되여잇스나 회사당국의 재산관계로우선 현재의 수교(水橋)에서 장연(長淵)으로연장시킨후 시긔를 기다려서 장연에서 옹진(甕津)으로비로소 황해도서해안의우회선(迂廻線)이 완성될것이라한다

元山基靑努力으로
貧兒教養院好績
後援會組織도準備

【元山】인간의 생활선이하에서 가장처렴하고 가장비위생적인악취속에서 남들의잔사(殘渣)로서 생명을잇고 이곳저곳의 청결등뒤집는것으로서 유일한생업으로삼는일의무리한 수만흔불상한거지아이들을위하야 원산기독교청년회(元山基督教靑年會)총무 리상문(李相文)씨는 장년시일을탑임에 만난과 고통을 무릅스고도 그들을 구하고저하용을임절을 무료로주면서 긔청회관상층을 리용하야 그들의배우려로상고 위선결인걸명을 모집하야매일밤 가르킨다고함은 당지보도한바이니와 그동안 전긔리상문씨는 시내로돌아단이며 걸식아동을모집한것이 오십칠명에달하얏는데 이빈아를 각지역별로는아못코 그각지역에는 분장을두어 매일밤한과시각전에는 각반원의 동정과 일일의행사를 일일히보고케하야 그들의 풍찬노숙에 거츤성질을 깃게된 자포자긔성을 교정하며 정도(正道)로 인도하기에 노력하는동인바이 분장보고가 잇슨후에는 일선보고(一善報告)를하고 그리고 조선어、산술、국어、창가등을교수한다고한다 그리고 그들을생산사업에 참여케하고 그생산에 취미를 갓게하는동시에 이생산을위한노력이야말로 고귀하고신성한것임을 인식하고 체득하게하기위하야 지난겨울부터 파수원용 봉투붓치기등 각종실어실습을 시키에 노력하며 그들의위생보건을위하야 여러가지를장려하며 그비용은 모다긔청(基靑)에서 부담한다는바 동원에서는이빈아교양원을 영원한 반석우에 놋코 가두에방황하는 어린거지아동의 영원한배움터로 하기위하야 후원회(後援會)조직을 계획하고 이후원회에서 동원의경비를 보조케하기로하고 방금준비중이라는데 일반유지제씨는이사업에 자진참가하야 주기를바란다고한다

鐵山體育會
創立記念準備

【鐵山】철산읍내에잇는체육회에서는 칠월칠일 이동체육회창립된지구주년긔념임으로 동긴부제씨는긔념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긔념식날에는 가장행렬등이잇고 밤에는읍의회원소인극등이잇스리라는바 벌서부터일반에게흥미가 비등하야 그날을손꼽아고대한다고한다

煙草小賣人
廿餘個所廢止

【新市】평북귀성군신시전매국판매소(新市專賣局販賣所)에서는관내소매인수약구십명중 이십여개소를폐지한다는바 조사한바에의하면 관내소매인이만치 소매인측의수입이적은편계로 판매의성의가업다는리유로 전긔와가티폐지할터이라는바 일반소비자는적지안타고한다

九日間에密酒發覺
勿驚、二百二十件
晋州稅署管內에서

【晋州】금번 진주세무서(晋州稅務署)에서는 농촌의 타맥이앙긔(打麥移秧期)를 기회삼아 관내 진주(晋州)산청(山淸) 사천(泗川)등지에 밀주취체를 착수하엿든바 지난십일부터 동십구일까지의 불과구일동안에 밝혀진건수가 이백이십건이란 놀라운수효에달하엿다한다

災民救濟金遝至

【惠山】함남갑산군은 작년흉작으로 말미암아 겨울부터 그생도가 곤난하야오든바 최근에는더욱 막심하야 처참한 현상인바 갑산군당국에서는 구제에노력하엿스나그야말로조족지혈격이나 아직도계속활동중이던 지난이십오일에 혜산방면에서 구제금을모집하엿든바 다음과가튼일반의 동정이잇섯다고한다

高柱屹二十圓 金錫禹三十圓 金在赫二十圓 李元讓 元錫禮各十圓 趙承奉 鷹氣會社 惠新自動車部 各五十圓 料理組合三十圓 兒玉鎭吉二十圓 辻木茅松 高瀨敬藏 各三十圓 森勘次五十圓 林革會社 森利大岡本久雄 安成五各二十圓 全明韓 五圓 李舜燮十圓 鄭承鳳 白栄永各五圓 金鍾化十圓 李興三五圓 金源教三十圓 朴濟根 李昌俊各五圓 金弘教十圓 韓基範 二十圓 李弼 十

■ 金汝植 金琪植 李德洞各一圓 五圓 鄭宗七 二圓 方允業五 ■

電燈架設準備

【陜川】경남합천(陜川)은 일반시설이타군에못지지 안케 완비되엿스나 아직전등가설이 되지못하야 유감이든바 일전에 대구 대흥전기회사(大邱大興電氣會社)에서간부와 기사가 내합하야 관공서 간부와 지방 유지 들이 회합 하야 이에 전등가설에대한 구체적타합이 잇섯는데곳조사에 착수하기로 이견이일치되얏스므로 합천에 전등이 가설될날도 불원하리라한다

봄다 정소기작일하지못하야 소라에서는매우 불편한상태에잇다고한다

缺損햇다는口實로
勞賃을三割削減
蟾津江橋架設請負業者
中村組의非行暴露

【河東】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경계하야잇는 섬진강(蟾津江)교량공사가 소화팔년부터공사를하여오든이래거의 준공을보게되얏는바 청부업자측에서 공사를청부한이후 천재지변등 여러가지의사정으로 막대한손해를보앗다는리유로 삼백여로동자에게 지불할로동임금 사천팔백여원에대하야 삼할을감하고바드라고하는 무리한말에 당면한로동자들은 절대반대하엿스나 돈이업스니마음대로하라고 배시심조케내미러버렷다 하로에삼사십전의 헐한로동임금을바다 근근히생명을유지하여오든로동자들은 싸우자하여도싸움할힘이업섯다 하는수업시 눈물을먹음고 삼할을감하여서라도 밧고해결한로동자도잇고 그중에는 세력이잇는 로동자에게는 전액지불도하얏다고한다 이에대하야 도단한 중촌조(中村組)에대하여 일반로동자들은물론 지방인사들도분개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技術競爭타가
同僚毆打致死

【鐵山】평북철산군부서면강하동 조선개와점하는김운일(金運一)방에서지난이십칠일 직공들의말다툼으로 살인사건이돌발하엿다는 급보를접한당지경찰서 경관대수명이현장에출장하엿스나 이미가해자는 도망하야버려서 체포치못하엿다는바 그내용은 지난이십칠일 전긔김운일(金運一)게와점에서 가해자리사선(李士善)피해자최창긔(崔昌基)두사람이서로 잘한다고 기술루경쟁하다가 필경싸움이일어낫섯는데 여러사람들의 감정을풀기위하야 동리주막으로가서술을 마시다가 또다시전긔량인은 싸움을 시작하여 전긔리사선이가 피해자인 최창긔를 란타하야즉석에서 혼도케한바 급히읍내광동의원에 달려왓스나 어떠가는저서 드되여 의일인이십팔일 새벽오시경에 사망한것이라고한다

一山公立普校
學年延長認可

【一山】일산공보교는 창립이래 다수한 영재를내여왓스나 오직 오학년의정식인가가도지못하얏슴을 유감으로생각하던바 수일전에정식인가가되엿슴으로 학교당국은 물론 일반학부형들과 배움에 주리고찻든 학생들은 대단히 깃버한다고한다

地方人事

▲崔命根氏(白川公普訓導)今番白雲公普校長被任入事次本社白川支局來訪

普校依然入學難
一、二校增設計畫
平壤府의初校入學難緩和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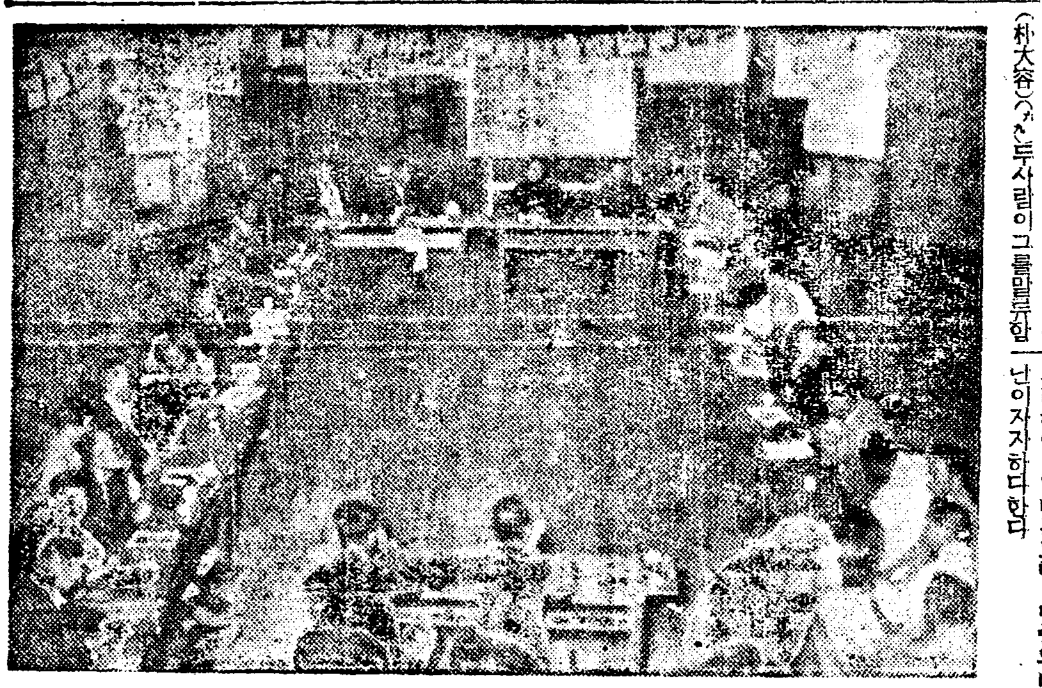
【平壤】평양부내의금년도공립보통학교입학희망자상황을보면 입학희망자이천구백사십육명에대하여 입학자는 불과일천구백입명으로휴학합입부달리의 입학률로서다시적령아동전계로보면 적령자삼천칠십오명에대하야 공립보통학교입학지원자구백입명 그외사립보통학교사백십구명 잡종학교삼백사십삼명합계이천팔백오십삼명으로 약팔할부이리입학률을 나타내고잇다 그런데 잡종의삼백사십삼명은 이전한조선교육을 밧는다할지라도장래는보통학교에 수용할필요가잇고 도저히에달해스나입학난으로교육을못밧는 아동등을철저히취학케하기위하여 부제이교육부에서는 명신일년에잇서는보통학교를 일교내지이교를신설할계획아래에 안을세우고고려중이라는데 일반부민은만흔기대를가지고잇다한다

젊은藥種商이
老爺毆打瀕死

【淸州】지난이십구일밤열시경에 청주읍청수정(淸州邑淸水町)에서 젊은이가 늙은이를구타치사하엿다는 소문이자자하엿다 그내용은 청수정에서건재약국(乾材藥局)을하는약종상리모(李某)가사소한일로 경성부다옥정 삼십구번지에 주소를두고 청수정에와서적해상을하는송창용(宋暢用)(ㅇ)이란노인과 언쟁하다가 약잇고 돈잇스니까 상처나면치료해주면그만이라는호어를하며송(宋)을구타하얏는데 그외한방에룻숙하는 조화상(造花商) 박대용(朴大容)(ㅇ)두사람이 그를말루함도불구하고리(李)는폭언과함께부른엽구리를차서 일시 가사상태에일르러 아직도 생사가미판인바 좌우간젊은이로서 더구나약종상으로서 늙은사람을 함부로치는것은·매우탈선된 불량행위라하야 일반부도한 대중의비난이자자하다한다

扶安에赤痢猖獗
二十餘日동안에英田里서만
犧牲兒童이十五名

【扶安】전북부안군보안면영전리(扶安郡保安面英田里)에서는 이십여일전부터 어린아이들간에적리(赤痢)가 창궐하여 필사적예방과치료에도불구하고 그간십오명이란 아이들이 사망하엿다는바 이제는겨우 진식이되엿스나압흐로 일반은더욱 위생에주의할필요가잇다한다



十七歲少婦가
男便毒殺未遂

【海州】시어머니의 학대가무지한며누리로하여금 본부독살미수(本夫毒殺未遂)란무서운죄를 지게한인생비극-옹진군동남면서장리(甕津郡東南面西壯里)리연각(李逵角)(ㅇ)이란녀자는 작년십일월경에 우봉암(禹鳳岩)(ㅇ)과 결혼하야 이래동거해오든중 시어머니의학대로말미암아 결혼후로한번도친정에가지못하고 남모르는 눈물을흘리며 지내오든중 남편을 독살하면 자긔는 자연 친정으로 도라갈수잇다는 한생각으로 지난륙월이십팔일오후팔시경 남편의저녁밥에『복어알』을석거너혓는데남편우(禹)씨는 두서너수갈을먹는중 이상한 냄새가나서 먹지아니하야 소긔의목적을달치못하엿다 이사실이 소관옹진경찰서(甕津署)에탐로되여 동서에서는 전긔리연각을즉시검거하야 본서에인치하고방금 살인미수죄(殺人未遂罪)로 취조중이라한다

婚需詐欺當코
憤김에暴行

유력신부를미끼로 혼수갑이십원만사기한맹낭한사건은 기보와가치이십륙일에 소관종로서에서취조해본후결국은 주어든혼수갑만도루찻고해결을짓기로하고 관계자를 내보냇는데 필경일이무사치못하고 유협의소동을 이르켜서다시경찰에 문제가되엿다 즉그후 중간에서혼수갑을먹엇다는 중매인당주동(唐珠洞)구실칠번지 공영열(孔榮烈)(ㅇ)은그만어대로 도망해버렷다고한다 이일에 분개한 신랑인평강군리목리다태동(平康郡梨木里多太洞)리씨룡(李氏龍)(ㅇ)의 어머니김씨(金氏)는 상식입아출에 공영열의집에가그안해류봉이(柳鳳伊)(ㅇ)를보고 돈을달라고졸라다가 말을듯지아니하니까 그만그를함부로 따려서 얼굴이피투성이가 되게하엿다 이에유봉이는 인력거에 실려서 종로서에와서 이일을 호소하야 그서에서는 가해한 김씨를폭행죄로 취조하리라한다

木浦
湖南少年少女雄辯大會

▲時日 八月十日、十一日午後七時
▲場所 木浦劇場
▲年齡 十三歲로十六歲까지少年少女
▲演士宿泊料 湖南評論社負擔
◇主催 湖南評論社
◇後援 朝鮮日報社木浦支局

楚山
裁縫講習會

▲時日 七月五日부터同七日間
▲場所 楚山公會堂
◇主催 싱거會社楚山分店
◇後援 東亞朝鮮兩楚山支局

今二日夜
玄濟明獨唱會

△場所 安岳公會堂
◇主催 本社安岳支局

淸州記友團主催
地方發展座談會
廿八日於淸州公會堂

【淸州】去二十二日에開催하기로되엿든 淸州記友團主催、地方發展座談會는 事情에依하야二十八日에開會하기로되여 同日午後四時三十分에 官民三十餘參加로開會되얏섯는바 話題는다음과갓다

一、衛生上改善問題
二、[illegible]問題
三、物價調節策
四、市街改善問題
五、生活改善策(婚姻宴飮普問題)
六、娛樂機關改善問題
七、市價燈의增設問題
八、其他

問題에對하야 討論된骨子는다음과갓다

一、撒水의普及을期할事
二、山地인淸州이니만치 뚜-ㄹ의設置는必要하다 共同된바水道의剩餘又는 明岩堤水의利用場所의 適宜한도잇고費用은略 一千圓을要하는데 實現性이可能性이잇會몬不當라곡 期成하도록衆議一致되다
三、自然調節기달일수박게는업다
四、自動車路의選定할必要 表面도必要하지마는 되이지안는곳에도徹底를期할事
五、時間嚴守 會費輕減等
六、現在淸州劇場의經營及設備의不充分을異口同音 大改革의必要力說
七、町別組合을組織하야 街燈數를增加하며 電氣會社에서는犧牲的架設及料金減下를努力說
八、町會組織으로 모다不充分한座談을 하지못한것은 遺憾으로생각하얏스나 第一回座談會로서 相當한收獲이不無하얏다

◇寫眞…座談會光景

桂貞植博士提琴獨奏
地方巡回

伴奏 피아노 獨逸人 골러孃

▲京義線 ▲宣川 二日 宣川會館
◇湖南線、咸鏡線追後發表
(會員券壹圓)

主催 朝鮮日報社

그女子의一生 【143】
婚姻篇 春園 作 夕影 畫

『옴바! 옴바!』

하고 금봉은 인현의 두어깨에 팔을 걸고 매어달려서 느껴울엇다. 금봉은 자긔의 신세를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한것이엇다. 금봉이가 삼년전 동경을 향하고 떠날 때에는 자긔의 전정에는 오직 광명만 잇는것 갓탓다. 그러나 그때와 오늘과 어떠케 변하엿는가. 세상이 자긔를향하야 손ㅅ가락질하고 자긔를가정에 들여놋치못할 사람으로여긴다는 인현의 말이옳은것갓탓다. 금봉은 잔걸음을 처서뛰어와서 무르팍에 매달리며 『엄마』하고 낫선 외삼촌을 힐끗보는 정선을 대하기도 가슴이 아팟다.

『그럼 옴바』

하고 금봉은 눈물을 씻고 정선에게 젖꼭지를 물리며 물엇다.

『그럼 옴바 내가 어떠케면조하면 전생의 업보란것인가바。네나 내나 무슨 비극적 배우노릇을 할-그것도 비장한 비극이 아니라 아주 지지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운명을 타고난것 가태。너는 성품이 퍽 명랑하기나 하지마는 나는 게다가 침울하지。너는 향락을 바라고 나가는 모양이다마는 나는 밤낫에 생각하는것이 도모지 뒤숭숭하고 이세상과는 떠난 입만이란말이다。내 또래 젊은패들도 요새에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청년회니 신문이니 실업이니 하고들 날치고 하지마는 나는 그것도 다 시틋하고 하고싶다면 경성부 소제인부가 되여서 똥통을 메고 뒷간이나 츠려다니거나-도로를 쓸너다니거나 그러치안니하면 고만 산으로 들어가서 중이되고시퍼。아이 쓸데업는 소리를 것김로 답아나고 말엇다。』

하고 인현은 아까 하던 말ㅅ아요?』

『사람다운 일을 하는 생활을 하란 말이다。』

『사람다운 일이 무엇이오?』

『교사노릇을 하는것이 제일좃켓지마는 멘헤후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될것이고。간호부도 좃치。산파를 배와도 조코。그리고 절대에 밋는대로 수녀나 승이되는것도 한 길이고。무엇이나 인생에 조곰이라도 도움되는 일을하란말야。가만히 생각해보아라。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쌀을먹고 직공들이 피땀 흘려서 짠옷을 입고 집안에 사람을십사인씩 두어서 시종을 들리고 그리고 안저서 네기 하는 일이 무엇이냐말이다。한가지도 인생에 이로운 일은 하지못하고 밤낫 생각하고 하는것이、무에라고 할까、노골적으로 말하면 죄 짓는일 밧게 하는것이 무엇이냐 말이다。이 점에 잇서서는 나부터 마찬가지지。 베나 내나 외모도 팬찬코 재조도 남에게 지지안코 마음이 남달리 악한것도 아니언마는 무슨 결함이 잇서서 그러한지 도모지 제자신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오 세상에 대하여서는 유해무익한 사람이란말이다。그것참 이상한 일이야。우리보다 못해보이는 사람들도 다 유태하게、각각 신념을 가지고 저 갈 길을 걸어가고 잇는데 엇재 우리 남매만 이 풀일까。아마 이것이 운명이란것인가바。죽을때로 따길을 찻노리고 잡깐눈을 감는다。』

금봉은 인현의 말이 마치 무슨 슬픈 음악을 듯는것 가타서 전신에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앗다。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것 가탓다。그러나 옴빠나 제나 다 비극적 인물로 태어낫다는、말은 몹시도 분명하게강하게 금봉의 가슴을 두다렷다

인현은 얼마 잇다가 다시 눈을 뜨며、

『내 말을 좀더 하자。좀 무시무시한 말 갓치마는 나는 가끔 헛개비를 보아。내가 피무든 칼을 듣고 여러 사람을 찔러죽이고 미처날뛰는 헛개비를 본다말야。꿈도 아니오 생신데 그러탄 말야。그 죽는 사람들의 의복과 얼굴까지 분명히 보이거든。그리고 내가 피흐르는 칼을 듣고 날칠때에 내 심리、내 감정 그것이 아조 소상하게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거든。그러치만 그게 누군가。내가 무슨 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가、하는 것을、그 헛개비가 지나간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긔억이 분명하고 소상한듯 하면서도 알수는 업단말야」

하고 인현은 불쾌한 긔억을 흔들어 떨어트리라는드시 고개를 두어번 흔들더니、

『그래서 내가、어떱 중얼여 그 말을 물어보지안헛니？래허라는 것은 중인데 저、왜、송월동-아마너는모르겟다、내학교동무』

하고 잠깐 말을 끈는다。

群山

群山府

群山府外開井里 熊本農場

全羅北道會議員 文袁泰 (沃溝郡)

群山府淺山町三番地 南朝鮮電氣株式會社

朝鮮信託株式會社 群山支店

群山府昭和通二丁目 世昌醫院 院長 姜世馨 電話八一二番

沃溝郡面友會

沃溝郡臨陂 康泳部

群山府日出町七十三番地 加藤精米所群山支店

群山木曜會

群山 土曜會

群山漁業組合 組合長 佐藤德重 理事 片山萬七

博川

博川邑內 李王伯

博川郡廳

博川驛前 ㊍運輸組 組合長 山門太郎 電話三四番

博川邑內 李龍星

博川面協議會員 張炳健

博川邑內 吳允贊

金本位復歸問題
爲替安定과景氣
英國大學 로빈쓰敎授論點

「스타-링」이 低落하야 ... 一個年間에 十二%以上이나 低落된것을보라 世界景氣는 더욱 惡化하고 同時에 對外經濟關係惡化의 危險性도 더하다 하겟다 「스타-링」의 ... 低落이 金價値에 對하야 ... 現在의 파리리이를 放棄하야 自國의 通貨의 金價値를 維持코저하는 努力은 ...

然하나 ... 對抗키 어려워야하는 ... 制約은 ... 限界에 到達하야 ... 實現의 可能性은 疑問이나 萬若 各國이 一齊히 ... 十五%乃至 二十%의 ... 實行하고 그것이 ... 그러나 이것이 果然 그러케 平穩 ...

하게될가? 생각컨대 金本位를 ... 그러고 ... 그러케될때에는 ... 에는 一九三一年 ... 一九三三年에는 ... 金解禁을 ... 하지 안코 ... 不安定한 物價水 ... (續)

朝鮮産業調査會
下旬外地關係官會議
拓務省서 創設準備

總督府에서 朝鮮産業調査會를 目標下에 新興産業大調査會 設置計劃이잇다함은 이미本紙에 報道한바이오 去月二十六日 京城商議에서열닌 朝鮮商議聯合會의 工業大座談會를 그前提라보앗든바 果然三十日東京電話에依하면 別項과가티拓務省에서 朝鮮産業調査會를 創設코저準備中으로서 七月下旬까지에는 外地關係官會議를 召集하리라하야 크게注目되는바이다 그로보아 咸鏡北道茂山의 製鐵問題는右調査會의設立問題와 關聯하야 審議될것이라고한다

咸北茂山의 製鐵問題도關聯
今井田總監도出席

【電通東京電話】拓務省에서는이번朝鮮産業調査會를 創立한뒤 朝鮮의産業經濟에 關하야具體的方策을 講究할方針을決定하고 七月下旬까지에는 外地關係官會議를召集하고 朝鮮으로부터는今井田政務總監以下의出席을要求하고諸般의協議를하리라고目下準備를進行中인데 第六十七議會에서 製鐵國策의 强調를본點에 再開키로 ... 하야 渡東할것이다

米生産費調査會
小委員會廿日에

二十日부터 再開키로되엿든 外地米生産費調査小委員會는 二十日부터 再開키로 變更하얏다 從하야五日 技師는十五、六日頃 渡東키로變更하고有賀殖銀頭取도 이와前後하야渡東할豫定이다 矢島農林局長石塚

無力고사나?
米移出續增,粟輸入激減
食糧品位低下一途

別項과가티 昨年十一月以降 今年六月末까지의 米移出은 比前年同期十萬七千餘石의增加로서六月中移出增이特히 顯著하얏슴에 對하야 좁쌀사먹는 朝鮮農村의 窮地로서 粟輸入은比前年同期 二十一萬餘石의 激減을 示하야크게注目되는데이는 朝鮮農村이좁쌀도사먹지못하고 보리에서밀等雜穀으로食糧品位가작구低下되어감을 示하는것이라하겟다

▲米=六月中米移出高는 五十三萬九千石으로 前年同期 三十一萬四千百四十二石에 比하야 二十二萬五千三百十二石의增加를示하엿고 그리고 十一月以降六月末累計는 七百三十七萬五千四百石으로 前年七百二十六萬 三千三百七十三石에 比하야 亦是十萬七千百三十二石의 增加인바 六月은 十一月以來特히 顯著한增加를示하얏다

▲粟=六月中粟의 輸入高는 八萬七千六百二十三石으로 前年同期十二萬三千五百二十五石에 比하야 三萬五千九百二十二石의 減少를 示한바이것은 今年麥의豐作에 基因한것으로 農村의보리고개도 이만하

六月中米及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

	出移 本年	前年	本年	前年	合計 本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輸入 本年	前年	移入 本年	前年	合計 本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輸入 本年	前年	移入 本年	前年	合計 本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 五月中正誤 移出米 [illegible] 移入米 [illegible] 移入粟 [illegible]

五月末簡保三十億

【東京電話聯合】簡易保險은 去五月末三十億圓에 達하얏는바 保險加入者는 日本內地人口千人에 八十二萬四千六百十六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十一萬七千八百三十五石의 輸入激減을示하얏다

그리고 昨年十一月以降累計는 無難히經過되엿다

朝鮮內의簡保狀況

【遞信局調査】朝鮮簡易生命保險 五月末現在契約件數는 如左하다

日本內地人 二三〇、二六五件
朝鮮人 四七七、八八七件
計 六九八、一五二件

對하야 三百二十件의比例로 朝鮮人에對하야 一人이加入한 民三人에 大正五年簡易保險局創始以來의 記錄的成績이고 또三十億圓中 五億圓은 一個年內에 增加한것이라다

日銀參與任命
大藏省一日發令

【東京電話聯合】大藏省에서는 一日附로써 任期滿了와 一名缺員으로서 日銀參與를如左히發令하엿다

正四位勳二等男爵 鄕誠之助
從五位 池田成彬
正六位 串田萬藏
從六位 八代則彦
森廣藏
日本銀行參與를命함 (各通)

各銀行上期
決算好成績
殖銀은創立以來大活況
相當銷却코配當据置

地元各銀行의上半期業績은 모다 近年에업는 好成績을擧하야配當은据置나當期의消却을行하고 內容의充實을圖하고잇다 銀行別로示하면如左하다

▲殖銀=公表利益百五十萬八千九百三十六圓으로 前期보다 三千二百八十八圓의增收인데 同行의最高記錄을示하얏다 前年同期보다 一層의好成績으로同行으로서는 實로創立以來의好調이다 總會는八月十五日、配當은九分据置

▲朝銀=數字는아직不明하나 業績으로보면 極히良好하야 一層配當은可能하나 特殊關係로 配當은四分据置, 總會는八月十五日頃定

▲商銀=期末預金四千二百三萬六千餘圓 貸出五千百九十六萬九千餘圓으로 前期보다 預金四百四十五萬六千圓 貸出百六十八萬圓으로 모다 增加 純利益(繰越 一萬九千餘圓을包含)十九萬八千圓으로 前期보다 八千八百六十圓의 增收를擧하야 十三萬四千圓의 消却을行하고 配當은 三分据置、四、五日中에重役會 總會는廿五、六日頃

▲貯銀=當期總益金 百五十二萬九千六百六十三圓 同總損金 三十五萬三千五百五十一圓 差額十七萬六千百十二圓 前期繰

物價昻騰不待코
通貨安定圖謀
政府의統制는産業退步而已
國際商議決議內容

【電通四日東京發】지난廿四日로부터 열닌國際商業會議所大會는 廿九日 閉幕하엿는데 決議는 十一項中 그重要한것은 다음과갓다

一、物價의昻騰을 안기다리고 卽時通貨의安定을 圖할일
一、國內及國際債務의解決
一、政府豫算의均衡을圖할일
一、政府가 할수로 民間事業을 經營함은 産業을退步케할念慮가잇다

國際鋼管新協定

【東京電話聯合】一時解散의 危機를 傳하든 國際鋼管協定은 五月에 再組織되어 런지케잇과의 交涉을 傳하든 國際鋼管협정에서는 런지케잇參加의 前에 販賣協定을 復活식히려고 先般來 同代表者 佛蘭西의 마네스만會社 日本駐在員과의 商議를 行한結果 細目條項을 合意하기고 大略決定되어 드되어 新協定이 成立하게되엿다 卽交涉의 主要한 點은

一、中國及 南洋方面에 輸出額
一、滿洲에의 輸出을 日本內地需要量에서 切離할것
二、滿洲에의 輸出을 擴大할것

으로 新協定成立에依하야 今後되던 獨逸의떰핑도 一掃되고 또 輸出市場도 新協定에比하야 大될模樣이다

上期金融界平穩
緩慢과低金利裡에

▲漢銀=公表利益金 八萬四千二百一千圓으로 前期보다 一千百四十五圓의 增收이다 配當은八分据置 二十五日總會

▲東銀=公表利益金六萬五千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不變하나 ... 三月總會

▲海東=公表利益金二萬二千百 ... 期의大差업고 配當은四分据置 十日重役會, 二十五日總會

三次整理米賣却?
關西北九州大水害로

【東京電話聯合】今年度上半期米 市場의 金融市場은 過去十年以來에 보지못하든 緩慢과 低金利中에 上半期金融의推移 히經過하얏다 ... 本期中에 ... 甘受치안으면 ... 期米에 對하야 ... 特히 ... 바로 ... 안되게되것은 在目되다

期米俄然强調나
大局的無大響

【東京電話聯合】天災期에드러間 西九州關西一帶에亘한 大水害로 期米市場은 俄然强調를呈하야 今朝七月限二十二錢 八月限三十五錢가량의奔騰을演出하얏는바 新甫의前은 ... 上으로는 影響이 ... 論今後의 被害調査結果를 보지 안코는 그리큰影響은 업스리라고 觀測되고잇다

그러고 五月十五日의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한整理賣却米二萬石中 第一次第二次의 入札賣却과 三次의 整理賣却을 發表케될모양이라고한다

重視되는初旬

株界大勢悲觀論이 만으면서도 軟派는 ... 突込繼續 ... 大勢還元 ... 아니다 ... 權利落이며 大阪은 五日에 日産新株配定이 잇슴으로 이것을 機로 ... 하다는 말이잇다

後場暴騰

後場은 小高寄로 ... 三時項東新도 ...

嫌氣投物續出

新甫도 無期待이다니 今朝는月初부터 前途無期待의嫌氣投物로 不勢를呈하야 ... 日産은新株權利落을앞두고 ...

九限見誕日에
米價前途一考

限期가 ... 此限의一代는 ... 九限見 ...

阪地俄然縮鞘
當地薄下鞘로

如何? ... 新甫九月限은 三十圓三十八錢 當地는 中限 二十八圓二十六錢인데 十一錢高 ... 當地 新甫九月限은 ... 十錢으로 下押하엿다 ... 後場强調 ... 國十五錢에 四十高 ...

開業謝禮

謹啓 ... 小生이 ... 仁川米豆取引所 ... 敬白

仁川府本町三丁目四番地
仁取米豆部取引員
取引員 吉村榮左エ門
電話 七〇七、一五八、一五九、市場專用一〇七、一〇二三

京城府明治町一丁目
朝取證券部取引員
取引店 小林 鈴三

刷新된丸福店
吉村氏가開業

【仁川】當市場의重鎭取引店인丸福의文化人으로 ... 小林鈴三氏로부터 丸福取引店을 ... 本月一日부터開業하고 ...

仁川在米減少

【仁川】六月二十九日現在仁川在米는 ... 前週에比하야 ... 如左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日本內地各地의 ...

上期各地正米

今日財界 (一日)

商況 (一日)

株式
一落後에
暴騰

前場低落

前場은 東京大阪長期新甫發會인데 ...

大阪短期取組

實物前場取引

東京國債市場

期米薄下鞘로發會
前場頭重

前場二十二圓五十九錢인二十二丁安高

市場六感

各地正米

米

金融 一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一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카코期麥 ◆綿油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綿粕沖價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株式 一日

◆朝取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現定代引日步

期米 一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